

碩士學位請求論文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갈등 연구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全 恩 瑛

1998年 2月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갈등 연구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全 恩 瑛



全恩瑛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1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갈등 연구

全 恩 瑛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논문은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성립된 신소설 중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가족 갈등을 고부, 부자, 처첩 갈등으로 나누어, 그 갈등 구조와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가족 갈등의 요인과 전개 과정, 심리학적 요인 등을 통해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작품은 여섯 편으로 한정하였고, 그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 갈등을 다룬 <치악산>의 갈등 요인은 무엇보다도 계모시어머니가 가정에서 여가장으로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세력 구조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친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다룬 <안의 성>은 며느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괴리에서 그 갈등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치악산>에서처럼 시어머니가 계모인 경우는 시어머니와 계모라는 역할이 중첩되면서 갈등 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부자 갈등을 다룬 <설중매화>는 가장의 애정 편중과 계모의 존재 의의에 대한 자각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추월색>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친부자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갈등 정도가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인 <설중매화>보다는 약하다.

셋째, 처첩 갈등을 다룬 <귀의 성>에서는 첩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남편의 사랑을 지키려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빈상설>에서는 처에 대한 열등 의식과 시기심,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갈등이 일어난다.

넷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효의 절대성 등은 며느

리, 전실 소생 등의 자녀, 첩(처)에게 주어진 갈등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추월색>의 정임만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일 뿐이다.

다섯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하층 계급인 <치악산>의 옥단과 고두쇠, <설중매화>의 난향, <귀의 성>의 점순과 최가, <빈상설>의 금분은 속량이라는 신분 상승과 돈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들로, 갈등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섯째, 가족 갈등의 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좌절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상대방에게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일곱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의 결말은 선인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패하게 되는데, 주인공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난 인물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악의 패배는 변동하는 개화기의 사회 속에서도 악은 허용될 수 없다는 윤리의 표방으로, 서술자의 의도는 계세징인(戒世徵人)으로 그 풍속의 교정과 전통적 윤리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볼 때 <귀의 성>은 그 전까지 소설적 관습이었던 행복한 결말을 깨고 비극적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고소설과는 다른 신소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덟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은 선인에게 먼저 연속적인 고통을 주고 끝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선의 효과적인 교시 기능과 긴장의 연속으로 독자의 흥미를 복돋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선징악적이고 흥미 중심의 경향은 바로 독자충을 의식한 결과이다. 또한 신소설의 악인형 인물은 전대 소설의 많은 요소를 유지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가족 갈등에서의 악인형 인물은 모든 악역을 실천하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인물은 작품의 여러 인물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존재들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 구조에 확실히 참여하면서 선을 부각시켜 문학적 가치를 발현하고 카타르시스적 문학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서도 그 문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가족 갈등을 다룬 개화기 가정소설은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 처첩 갈등 일변도인 전대 소설에 비해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부 갈등으로까지 그 갈등 양상을 다양화시켰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차 례

<國文抄錄>

I. 緒 論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3
II. 가족 갈등의 구조와 양상	11
III. 가족 갈등의 유형과 의미	21
1. 고부 갈등	24
2. 부자 갈등	38
3. 처첩 갈등	50
IV.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61
V. 結 論	70
參考文獻	73
Abstract	77

I. 緒 論

1. 문제 제기

개화기 문학이 지니는 문학사적 위치는 그 어느 시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회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는 동안 문학사에도 신문학의 성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화기는 전통적인 문학 형태가 이질적인 외래 사상과 충돌하면서 그 형태나 내용면에서 새로운 변혁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전통적인 문학의 근대적 변용과 외래적인 문학의 토착화라는 격변의 과정을 겪으면서, 문학은 자체 내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정치, 사회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문학은 문예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폭넓게 사회 계몽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구실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문학도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이념이 그 성격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의 변화는 주로 애국 계몽 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층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전대 문학의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비판하였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의 확립을 위하여 전대 문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후진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는 다방면에서 표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신학문에 대한 갈망, 전통적인 신분제와 계급 질서의 해체에 대한 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지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수반하면서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생산된 개화기의 대표적 장르가 신소설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에 드러난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은 시대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인

간의 삶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신소설은 근대화와 함께 새로운 문명이 밀어닥치던 개화기의 복잡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당대의 시대적 특징을 인물간의 갈등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 것과 새 것, 전통적 · 토속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의 갈등 관계 등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 관계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실제 작품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고 단일한 갈등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즉 신소설에 나타난 인물간의 갈등 양상은 시대적 특수성과 관련지어 논의할 때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정소설'의 관점에서 그 갈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정소설을 선택한 까닭은 그 특유의 성격 때문이다.

소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주목하는 양식으로 이해된다. 이때 가정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의 제반 사상과 규범의 실현 장소이다. 한 개인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집단에 소속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해는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개인은 가족들간의 상호 관계가 중심이 되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풍속이나 윤리적 규범 등 형식적인 측면과 부모나 자식 또는 이들 상호간의 극히 본능적이고 미묘한 심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간의 인간 관계를 다루는 소설은 인간 관계를 드러내어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인간은 가정을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는 인간의 공동 관심사일 수 있다. 특히 가족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 윤리의 변모 등에 의하여 가족 갈등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개화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신소설에서 가정소설이 양적으로 풍부하게 창작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제재가 갖는 강한 현실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가정이라는 집단 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특히 시대와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그 시대를 사는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작중 인물의 갈등이 어떤 심리적 요인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신소설의 가족 갈등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신소설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었다.¹⁾ 이 때는 신소설이 전통적인 고소설과 근대소설을 이어주는 존재로 규정한 연구와 신소설이 서구의 근대문학과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이식문학론적 입장의 논의가 우세하였다.²⁾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전 시대에 미진했던 실증적 연구가 진전을 보았다.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개화기 문학과 전대 문학의 맥락 관계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소설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³⁾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신소설 개별 작품에 대한 면밀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신소설의 갈등 구조와 양상을 연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⁴⁾

신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화의 기본 시각은 고소설의 일반적 양상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⁵⁾ 그는 고소설의 연속선상에서 신소설을 보면서 '낡은 양식에 새 정신을 담은 절충적

1) 연구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김태준, 「조선 소설사」(학예사, 1939). ② 임 화, 「조선 소설사」(인문평론, 1940). ③ 백 철, 「조선 신문학사조사」(수선사, 1948). ④ 조연현, 「한국 현대 문학사」(현대문학사, 1956) 등

2) 전자는 김태준의 「조선 소설사」(학예사, 1939), 후자는 임 화의 「조선 소설사」(인문평론, 1940) 참조.

3) 이재선, 「한국 개화기 소설 연구」(일조각, 1972).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송민호,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일지사, 1975).

4) 이용남, 「신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5) 임 화, 「조선 신문학사」(형류문화사, 1940).

인 문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신소설의 고소설적인 면모와 새로운 면모를 나누어 설명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면모는 '서구 문학의 수입과 이식'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양식과 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그의 연구 관점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이인직과 이해조의 몇몇 작품에 국한되었고 주로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고소설의 구조에서 변화된 신소설을 온당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개화기 문학의 문학사적 성격과 의미를 밝힌 문학사적 연구인 조연현의 <한국 현대 문학사>와, 서지적인 연구와 개별적인 작가의 전기 해명에 역점을 둔 전광용의 <신소설 연구>, 그리고 구소설에서 신소설로 변형되어간 과정에 중점을 둔 송민호의 <한국 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신소설의 성격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태도는 지양되지 못하였다. 이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소설과 다른 신소설의 새로운 특징만을 드러내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한 작품을 신·구 양면으로 갈라 버림으로써 신소설의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편 실증적인 측면에서 업적을 남긴 이재선은 신소설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⁶⁾ 그래서 사회 상황에 따른 가치 전환이 신소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폈다. 하지만 작품의 유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 상황을 해명하지 않고 '개화와 완고'라는 이원적인 시각에서 신소설의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조동일은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에서 신소설에 대한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귀족적 영웅소설의 구조를 근간으로, 스토리를 순차적 질서에 따라 나누고 거기서 드러나는 유형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전대 소설과 신소설의 계승 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러면서 신소설이 천상계를 청산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소설은 도덕적 당위성을 끌어들이어 이원론적인 것으로 되돌아 간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신소설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고, 구출자의

6) 이재선(1972), 전계서.

탈락, 해부적 구성 방식 등 신소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간과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소설에서 천상계가 청산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것과 신소설 구조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는 미흡하였다.

최원식은 이해조의 작품에 국한하였으나, 작품 내용이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음을 당대 사실과 관련지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⁷⁾ 그리고 이야기의 논리적 관계를 살피면서 신소설의 새로운 이야기 틀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세밀한 분석이 신소설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을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해조의 소설 전반을 살펴본 것이 신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짐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 작가의 작품에 국한되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처럼 신소설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의 가족 갈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문기룡, 이용남, 허만옥 등의 연구가 신소설의 갈등 구조와 양상을 해명하려 한 업적들이다.⁸⁾ 그런데 이들은 신소설의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서, 작품에 나타난 가족 갈등 양상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소설 갈등 연구는 개화기라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다시 말해 전통고수적 인물과 근대지향적 인물로 대별하여 그들의 갈등 양상을 살피고 있다.

가정소설의 관점에서 가족 갈등을 연구한 것으로는 최시한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⁹⁾ 그는 작품 안팎의 여러 이념과 사회 제도,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서사 형식, 작가의 내적 갈등 등을 중심으로 가정소설 전반에 걸쳐 살폈다. 그것을 통해 소설 구조와 사회 현실의 관계, 작품의 생성과 수용을 지배하는 양상과 원리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몇 작품에 한정되었으나 고소설에서 현대소설까지를 자료로 이용

7) 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8) 문기룡, "개화기소설에 나타난 갈등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이용남(1986), 전제서.

허만옥, "신소설에 나타난 갈등 양상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9)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민음사, 1993).

하여 가정소설의 지속적인 면과 시대와 사회에 따른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신소설의 가족 갈등은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원수의 경우도 가정소설에 초점을 두고 그 형성 배경, 작가 의식, 가정소설의 소설사적 위상 등을 통해 시대적인 변모를 살폈다.¹⁰⁾ 하지만 이 연구도 고소설에 대부분 비중을 두어 신소설은 그 계승과 변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학 작품은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문학의 사회사적 고찰은 문학 연구의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소설은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립된 문학이다. 당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갈등을 면밀히 검토할 때 이들 소설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소설은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작중 인물의 행위와 사고를 통해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소설 연구도 당시 여러 방면에 걸친 사회사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 이를 작품 분석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학사회학적 방법 외에 인물들의 갈등에 대하여 심리학적 방법으로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욕구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소설이라는 관점에서 가족 갈등을 연구하고자 할 때, 가정소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고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안확이다. 그는 <조선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은 基類가 頗多라. 그런데 형제간의 갈등보다 계모자간의 갈등, 시앗싸움이 다한지라.”¹¹⁾라고 하여 계모·자식간의 갈등, 시앗싸움이 가정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조운제는 <한국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에서 취재한 소설을 의미하고자 한 것인데, 가정 내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10)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 세계의 시대적 변모”(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1).

11) 안 확, 『조선문학사』(한일서점, 1922), p. 101.

주로 계모와 전처 소생과의 관계사 혹은 처첩간에 일어나는 사실 등이 되겠다.”¹²⁾고 언급하여 안확의 주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가정소설의 개념 정의에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정주동과 김기동이다. 정주동은 <고대소설론>에서 “가정소설이란 효, 열, 우애 등 가정 윤리를 고조한 소설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정소설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 동양적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모순과 갈등과 비극을 표현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가정소설¹³⁾”이라 하여 그 범주를 좁혔다. 또한 김기동은 가정소설이란 가정 생활에서의 모순과 갈등과 알력과 비극을 포함한 작품들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양적인 가족 제도로 인해 부자간의 알력, 형제간의 불화와 갈등, 동서간의 시기, 고부간의 다툼, 계모와 전처 소생간의 갈등 따위는 으레 풍파와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처첩간의 비극과 계모와 전처 소생간의 비극을 조선 중기의 작가들이 주로 다루었다¹⁴⁾고 하여 정주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소설의 범주를 좁게 잡았다.

한편, 우쾌재는 가정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 가족 구성원간에 야기된 효열과 같은 윤리적 갈등에서 비롯되어 이질적 가족 집단에 의한 신분적 갈등으로 구체화된 작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정소설의 유형을 효열과 같은 가정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것과 윤리적 갈등을 주제로 한 작품, 계모나 첩과 같은 이질적 가족 집단에 의한 신분적 갈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소설의 범주를 폭넓게 잡고 있다.¹⁵⁾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정소설이란 1) 가정 내의, 2) 가족 갈등과 모순을 다루되, 3) 비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소설이라는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범주에서는 효, 열, 우애 등 가정 윤리를 고조시킨 고소설까지를 모두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처첩간의 비극과 계모와 전처 소생간의 비극으로 한정하자는 협의의 개념을 내세우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12) 조운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48), p. 318.

13) 정주동, 『고대소설론』(형설출판사, 1976), p. 296.

1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교학사, 1981), p. 506.

15) 우쾌재,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이 글에서는 가정소설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 성원간의 유대 내지 결합의 관계가 경제적, 심리적 갈등 요인으로 인해 깨지게 됨에 따라 인물들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되는 소설'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로 고소설에서만 쓰였던 가정소설이라는 용어를 역사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개념으로, 또한 우리 소설 전반의 그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대해 쓰고자 한다.

또 봉건 가족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성원의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가족 갈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소설을 택하여 갈등 구조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 연구성과의 확실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그 유형들의 의미를 통해 가정소설의 보편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소설에서 가족 갈등은 여러 가지 유형¹⁶⁾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갈등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고부 갈등¹⁷⁾, 부자 갈등¹⁸⁾, 처첩 갈등을 다룬 몇 작품을 선정하여 보고자 한다.

16) 필자는 신소설 작품에 보이는 대표적인 가족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고부 갈등
 - ㉠ 계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 <치악산>, <봉선화>, <금국화>, <수일룡>, <재봉춘>, <구의 산> 등
 - ㉡ 친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 <안의 성>, <두견성>, <해안>, <유화우>, <홍도화> 등
- ② 부자 갈등
 - ㉠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 : <설중매화>, <목단화>, <홍도화>, <춘외춘> 등
 - ㉡ 친부모와 자녀의 갈등 : <추월색>, <화세계>, <소양정>, <비파성>, <모란병> 등
- ③ 처첩 갈등 : <귀의 성>, <빈상설>, <화상설>, <우중기연>, <눈물> 등
- ④ 형제 갈등 : <우중행인>
- ⑤ 친척 갈등 : <금강문>, <설중매>, <춘몽> 등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갈등 유형은 고부 갈등이다. 또한 여기서는 보통 가족 갈등에서 볼 수 있는 부부 갈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Ⅲ장 가족 갈등의 유형과 의미 - 처첩 갈등'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7) 고부 갈등은 넓게는 부자 갈등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가정 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위치가 부자 갈등과는 또 다른 많은 갈등을 보이므로 따로 분류하고자 한다.

18) 이 글에서는 '부자 갈등'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부녀,

고부, 부자, 처첩, 형제, 친척 갈등의 가족 갈등 유형 중에서 형제 갈등과 친척 갈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제 갈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신소설에서 이 갈등을 다룬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 갈등은 남자라는 기득 지위를 가지면서도 재산 분배, 봉제사, 가족의 대표권, 가장권 등에서 신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관계의 차원을 넘어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았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는 형제 사이의 제문제와 현실적인 관련이 많았으며, 그로 인하여 형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 갈등 가운데 심각한 편인 형제 갈등이 신소설에서 다른 가족 갈등에 비해 잘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대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제 갈등을 다룬 작품들은 형제 불화의 양상을 독자들에게 대리 체험케 함으로써 형제 우애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는 의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화기에는 시대와 사회 변화가 독자들의 개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 형제 우애를 다룬 작품이 전대 소설에 비해 제대로 그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소설의 독자가 주로 여성이었다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 자신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고부, 처첩 갈등에 비해 형제 갈등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었으므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척 갈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 글에서는 가족 갈등을 친척들과의 갈등으로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고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을 중심으로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 부자 갈등,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들은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갈등의 양상을 잘 볼 수 있으면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여기에서 택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의 갈등을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갈등 구조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중에서 가정소설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몇 작품을 택하였다. 고부 갈등을 보이는 작품으로는 계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보여주는 <치악산>과 친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보여주는 <안의 성>을

모자, 모녀 갈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즉 '부자 갈등 = 부모 자식 갈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택하였다. 부자 갈등을 보이는 작품으로는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을 다룬 <설중매화>와 친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다룬 <추월색>을 택하였다. 그리고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는 <귀의 성>과 <빈상설>을 택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가족 갈등이 어떠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했고, 가족 갈등을 형상화한 작가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신소설의 가족 갈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소설의 제재가 당시 사회의 실제 현실이었던 만큼, 필요하고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신소설의 가족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소설의 갈등 연구의 폭도 넓혀 보고자 한다. 작품 내의 갈등 구조를 통해 인물들의 갈등 요인과 전개 과정을 살피고, 그러한 갈등 요인에 대하여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문학사적 의의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 : 신소설 · 번안(역)소설」(1 ~ 10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8)과 「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1 ~ 21 : 계명문화사, 1987)이다.¹⁹⁾



19) 이하 인용 작품들은 '아세아전집'과 '계명전집'으로 줄여 쓰기로 한다.

II. 가족 갈등의 구조와 양상

일반적으로 갈등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이질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여 부조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갈등과 비슷한 뜻으로 투쟁, 대립, 대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들 사이에 사소하면서도 미묘한 의견 대립이나 이해를 위한 대립에서부터 인간과 사회, 혹은 인간과 자연, 사회(집단) 혹은 국가간에 뚜렷하게 표면화된 대립 관계는 물론이고 생각과 생각, 이념과 이념간의 대립까지도 이 범주에 속한다. 갈등으로 인한 긴장 관계가 쉽게 해소되어 조화와 안정을 되찾는 경우도 있고 긴장 관계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아 조화와 안정의 경지를 가져오기 어려운 대립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은 흔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동기와 결과, 즉 인과 관계까지도 검토되어졌다.²⁰⁾

한 편의 소설은 그 구조가 지니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충돌, 대립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유발되며, 그 긴장은 소설 구조 자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소설 내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소설의 가치가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소설 구조가 지니고 있는 갈등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소설에서는 갈등 양상이 거의 '善者必興', '惡者必亡' 이라는 도식적 종결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개화기라는 혼란과 충격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나타난 신소설에서는 갈등 양상이 전대 소설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래 문화의 충격으로 인한 시대 조류의 변화는 개화기를 체험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혼란하게 하였고 인간의 내면적 갈등도 표면화시켰다.

또한 개화기 사회의 환경 변화는 사회 제도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갈등도 내적 혹은 외적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신소설에서의 환경과의 갈등은 성격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 갈등과

20) 이용남(1986), 전계서, p. 8. 참조.

작중 인물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소설에서 갈등은 작중 인물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정해 준다. 작중 인물 사이의 가장 첨예화한 대립적 관계는 흔히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이다.²¹⁾

소설에 나타난 갈등 구조는 주제 의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신소설에 나타난 주제들은 당대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갈등 양상들의 표출이다. 신소설에서는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응 양상이 시도되었다. 주로 양반층과 중인 계층에서는 신학문에 대한 갈망으로 외국 유학을 단행하며, 노비층에서는 신분 상승 의지가 속량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따라서 신소설에 나타난 갈등은 단순히 작중 인물들간의 갈등 양상으로만 파악할 수 없으며, 그것이 창작되던 시대적 특수성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설에서 이러한 갈등 구조의 전개 과정과 그 변화 양상을 통해서 가족 갈등을 다룬 신소설의 한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고부 갈등이 보이는 가정소설을 분석하여 그 갈등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치악산>의 서술 분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 이씨부인은 홍참의 아들 홍철식의 아내이고, 가정이 화목하다.
- 2) 이씨부인의 남편은 생모 박씨가 일곱 살 때 죽고, 김씨가 계모로 들어온다.
- 3) 이씨부인은 남편의 해외 유학 중에 계모시어머니에게 더 미움을 받는다.
- 4) 이씨부인은 계모시어머니와 종 옥단이, 고두쇠의 모의에 의해 치악산에 버려진다.
- 5) 이씨부인은 장포수와 수월당 스님, 시아버지 홍참의에게 구출된다.
- 6) 계모 시어머니의 흉계가 탄로나고, 그로 인해 친정으로 축출된다.
- 7) 이씨부인은 남편과 다시 결합하고, 계모 시어머니는 회개하여 가정이 화목

21) 상계서, p. 11. 참조.

22) 배미영, "이인직 소설의 작중인물의 대립양상"(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86), p. 10.

해진다.

<안의 성>의 서술 분석

- 1) 박정애는 여학교 시절에 만난 김판서 아들인 김상현의 아내이고, 가족이 화목하다.
- 2) 박정애는 연적(戀敵) 정봉자의 모함으로 시어머니가 오해하여 친정으로 쫓겨난다.
- 3) 박정애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정봉자가 훔쳐내어 모해함으로써 결국 이혼을 당한다.
- 4) 박정애는 남편이 시름을 풀고자 해외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이 되어 가출한다.
- 5) 박정애는 남편 친구인 현국진에 의해 결백이 밝혀진다.
- 6) 정봉자와 김영자는 구속된다.
- 7) 박정애는 귀국한 남편과 자신을 찾아 돌아다니던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고, 가정은 화목을 되찾는다.

이상과 같은 고부 갈등을 다룬 작품의 유형 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공은 가정이 화목한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
- 2)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계모)시어머니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고난을 당한다.
- 3) 살해나 가족과 헤어져 방황하는 등의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난다.
- 4) 가해자는 흉계가 밝혀지면서 응징된다.
- 5) 주인공이 귀가하고 가정은 화목을 되찾는다.

앞에서 갈등이라고 하면 인간들 사이에 사소하면서도 미묘한 의견 대립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

런데 고부 갈등에서는 (계모)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맞부딪히는 갈등보다는 한 쪽은 가해자로, 다른 한 쪽은 피해자로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즉 (계모)시어머니는 가해자로, 며느리는 피해자로서 갈등을 보인다. 가해자인 (계모)시어머니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갈등을 보이는 반면, 며느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러한 갈등 형태는 둘의 참여한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갈등 양상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 이는 당시 사회의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III장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고부 갈등을 다룬 작품 내에서도 갈등 양상의 차이는 볼 수 있다. 계모시어머니가 가해자로 등장하는 <치악산>에서는 고부 갈등이 작품 전체의 중심적인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친시어머니가 가해자인 <안의 성>의 경우는 고부 갈등이 단독으로 작품 전체의 중심적인 갈등이 되지 못하고, 정봉자의 애정 갈등과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이같은 고부 갈등 구조는 영웅소설의 구조²³⁾와 유사점을 보이는데, 그 요인으로서는 우선 한 인물의 일대기적인 소설 구조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인공이 고난과 행복의 교체를 겪고, 위기와 시련 속에서 벗어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데서도 유사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고부 갈등을 다룬 신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주인공의 의지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 스스로가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으로써 갈등이 해결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신소설이 고소설의 비현실적인 면을 극복하면서도 우연성이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당위성을 끌어들이어 이원론적인 것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전대 소설의 행복

23)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② 비정상적으로 잉태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

③ 凡人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④ 어려서 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⑤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조동일(1973), 전계서, p. 53.)

한 결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자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중매화>의 서술 분석

- 1) 옥희는 김진사의 딸이고, 가정이 화목하다.
- 2) 옥희의 생모 박씨가 일곱 살 때 죽고, 안씨가 계모로 들어온다.
- 3) 옥희 남매는 계모에게 미움을 받는다.
- 4) 옥희는 계모가 종 난항이와 친정오라비 재덕을 시켜 자신을 겁탈할 것을 모의하자, 가출하여 자결을 시도한다.
- 5) 옥희는 일본인 국미차랑에게 구출되고, 그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유학한다.
- 6) 옥희는 계모가 일본에까지 보낸 친정오라비 재덕에 의해 살해 위기에 처한다.
- 7) 옥희는 국미차랑과 약혼자 진태에게 구출된다.
- 8) 계모의 흉계가 탄로나 재판을 받는다.
- 9) 옥희는 진태와 결혼하고, 동생 춘국도 만나 가정이 다시 화목해진다.

<추월색>의 서술 분석

- 1) 이정임은 이시종의 딸로 김승지 아들 김영창과 혼약을 맺는다.
- 2) 이정임은 김영창 일가가 민요(民謠)로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집에서 나와 일본으로 간다.
- 3) 이정임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에 강한영의 청혼을 거절하다가 피습당한다.
- 4) 이정임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김영창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 5) 이정임은 김영창과 고국으로 돌아와 부모를 만나고 결혼한다.
- 6) 강한영이 구속된다.
- 7) 이정임은 만주로 신혼 여행을 갔다가 청인 마적에게 잡힌다.

8) 이정임은 그곳에서 시아버지 김승지를 만나 구원받고 김영창 등 일가가 함께 돌아와 화목하게 된다.

부자 갈등이 보이는 작품들의 유형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공은 사대부 집안의 귀한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가정이 화목하다.
- 2)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난을 겪는다.
- 3) 가족과 헤어져 방황하거나 살해 등의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난다.
- 4) 가해자는 흉계가 밝혀지면서 응징된다.
- 5) 주인공이 귀가하고 가정은 화목을 되찾는다.

부자 갈등의 유형 구조도 앞에서 본 고부 갈등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고부간이나 부자간이라는 관계 자체가 전통 가족 제도에서 비슷한 양상의 관계였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이런 가족 관계 역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작품인 이들의 갈등 구조는 유사한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고부 갈등은 전대 소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갈등 관계로 여기서 문학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자 갈등은 계모와 전실 소생간, 친부자간 혼인과 관련된 것은 전대 소설에서도 있었다.²⁴⁾ 하지만 이 갈등 역시 전대 소설과는 달리 신소설에서는 갈등 양상이 더 다양하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데서 개화기라는 시대와 사회의 반영을 볼 수 있다.

부자 갈등을 보이는 작품의 갈등 구조를 보면 앞에서 본 고부 갈등처럼 두 작품을 전부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해 보기는 힘들다.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을 다룬 <설중매화>의 경우는 계모가 가해자로, 전실 소생이 피해자로 등

24) 계모와 전실 소생간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장화홍련전>, <콩쥐팍쥐전>, <정음선전>, <김인향전> 등이 있다. 또한 혼인과 관련된 친부자간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는 <춘향전>, <채봉감별곡>, <이생규장전>, <양산백전> 등이 대표적이다.

장하면서 부자 갈등이 작품 전체의 중심적인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친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다룬 <추월색>의 경우 부모를 가해자로, 자녀를 피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부자 갈등 역시 작품의 중심적인 갈등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는 강한영이라는 인물을 가해자로 내세우는 애정 갈등을 함께 보임으로써 작품의 갈등 양상이 제대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처첩 갈등이 보이는 가정소설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의 성>의 서술 분석

- 1) 길순의 남편인 김승지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본처가 있다.
- 2) 김승지 첩인 길순은 김승지집에 도착하나, 김승지 본처의 포탈로 박참봉집으로 피신한다.
- 3) 길순은 김승지가 오지 않자 자살을 시도하나 순검에게 구조된다.
- 4) 길순은 아들 거복이와 쓸쓸히 지내다 비관하여 철도에 자살을 기도하나 김승지집 침모 인력거와 충돌, 자살에 실패한다.
- 5) 길순은 아들 거복과 함께 김승지 본처와 종 점순의 계책으로 최가에 의해 살해된다.
- 6) 길순의 부모인 강동지 내외가 길순이 꿈을 꾸고 상경한 후, 길순 모자의 죽음을 확인한다.
- 7) 강동지가 판수를 이용해 도망간 최가, 점순을 찾아 살해하고 김승지 본처도 죽인다.
- 8) 강동지 내외는 해삼위로 떠나고, 춘천집 모자도 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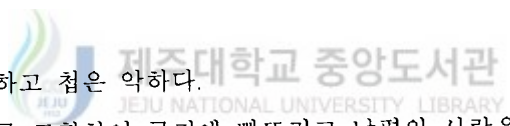
<빈상설>의 서술 분석

- 1) 이씨부인의 남편 서정길에게는 간교한 첩 평양집이 있다.
- 2) 이씨부인은 본집에서 축출되어 어렵게 살며 종 금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참는다.
- 3) 이씨부인은 복단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그 일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평양

집과 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뚜장이 화순집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 남편에 의해 위협에 처한다.

- 4) 이씨부인은 화순집에 의해 난봉꾼 황은률에게 넘겨 질 위기를 맞는다.
- 5) 이씨부인의 아우 이승학이 대신 납치되어 가서 황은률을 속인다.
- 6) 이승학이 복단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평양집과 금분은 구금된다.
- 7) 이씨부인은 승학과 함께 귀양서 돌아온 부모를 다시 만나고 상해로 간 서정길을 기다린다.

처첩 갈등이란 한 남성에게 대하여 두 명 이상의 여성이 사랑을 다투는 것으로, 여성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한 편의 여성은 선한 여성이고 이와 대립되는 여성은 악한 여성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악한 여성은 다른 편의 여성을 모해하고 핍박하게 된다. 그러다가 악한 여성의 간계가 폭로되고 착한 여성은 행복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플롯을 김일렬²⁵⁾은 '사씨남정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 1) 본처는 선하고 첩은 악하다.
 - 2) 첩은 본처를 모함하여 궁지에 빠뜨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 3) 첩은 남편마저 배반하여 궁지에 빠뜨리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한다.
 - 4) 첩의 간계가 탄로나서 남편과 본처는 행복을 되찾고 첩은 처벌된다.

그는 갈등 구조를 위와 같이 제시하면서, 3단계는 '사씨남정기' 외에 다른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1) - 2) - 4)의 구조가 곧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처첩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의 유형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25)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제11집(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4), p. 79.

다.

- 1) 남주인공에게 첩(처)이 있는데 첩(처)은 간교한 여성이다.
- 2) 첩(처)이 본처(첩)를 모함하여 궁지에 빠뜨린다.
- 3) 본처(첩)는 고난을 당하거나 살해당한다.
- 4) 첩(처)의 간계가 폭로되어 본처는 다시 영입되고, 첩(처)은 응징된다.

처첩 갈등 구조를 보면 전대 소설인 경우 대개 첩이 가해자로, 본처가 피해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소설에서는 다른 면을 보인다. <빈상설>은 전대 소설과 같은 양상을 띠지만, <귀의 성>은 그 반대 양상을 보인다. 즉 본처가 가해자로, 첩이 피해자로 설정되어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작가 의식의 개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처첩 갈등은 고부 갈등이나 부자 갈등에 비해 훨씬 작품 전체에서 중심적인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가족 갈등을 보이는 가정소설에서 고부 갈등, 부자 갈등, 처첩 갈등의 유형 구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갈등을 보이는 가정소설은 대부분 서두가 주인공의 고난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있게 된 상황과 원인 설명이 따르고, 다시 시련이 중첩되고 위기가 조성된 후 해소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공의 고난
- 2) 고난의 원인
- 3) 주인공의 위기
- 4) 고난과 위기의 해소

이와 같은 구조는 전대 소설의 구조와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그 갈등 과정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대립 관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선인형과 악인형의 작중 인물들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여 주면서 사건 구성 역시 이들의

대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건 전개가 반드시 고난에서 시작하여 고난과 행복의 교체를 겪고, 위기와 시련 속에 있던 주인공은 반드시 의외의 구출자를 만나 고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여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고, 악인은 반드시 응징되는 권선징악의 결말로써 해소된다. 이것은 바로 전대 소설의 구조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신소설은 구조적 측면에서나 갈등 요인, 갈등 해결 방식 등을 통해서 흥미 위주의 강한 통속성에다 해외 유학, 자유 연애와 결혼 등의 개화 사상을 장식함으로써 더욱 흥미를 가중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전대 소설과 동일한 수법으로 악인에 대한 응징을 들 수 있다. 모든 결말에는 악인이 응징되거나 개과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신소설의 구조에 반영된 봉건 사회의 세계관은 “봉건적 체제의 질곡 속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의해 대리 성취 욕망의 수단으로 향수된 고전소설”²⁶⁾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들은 주인공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갈등이 해결된다는 점과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전대 소설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의 시대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갈등을 다룬 신소설은 갈등 구조와 양상으로만 보아서는 전대 소설의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처첩의 역할 변화와 같은 신소설 나름대로의 변화 움직임과 특징은 찾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IV장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6) 황정현, “신소설의 분석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p. 73.

III. 가족 갈등의 유형과 의미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의 기본적 집단은 가족이며, 인간은 가족적 권리와 의무로 짜여진 망 속에서 개개인의 역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가족 속에서 최초의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며, 오랜 동안의 사회화를 거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 관계를 깨달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가족들이 바라는가를 터득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행위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적 권리와 의무는 시대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에 따라 가족 문화도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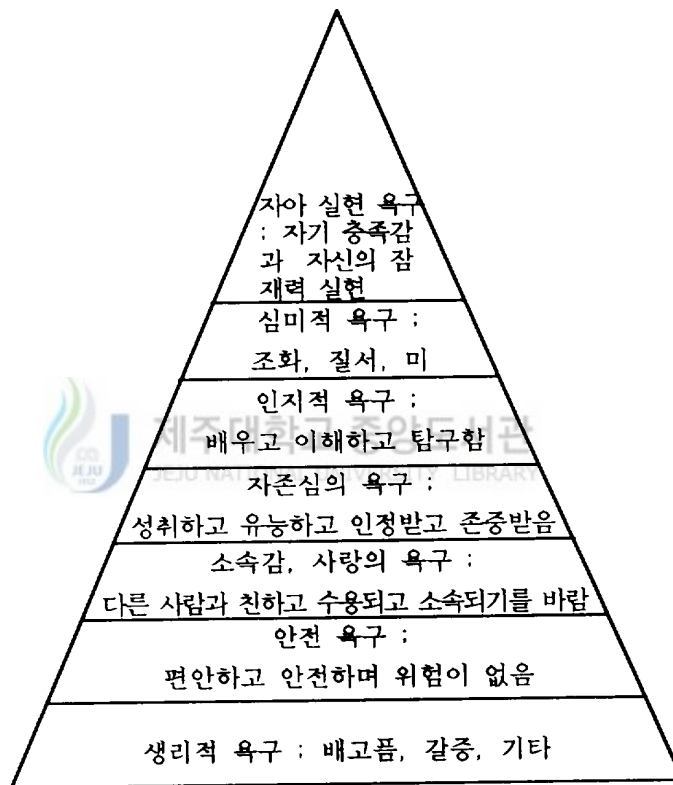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유교 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를 전통 사회 가족주의의 기본 특성으로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 가족 사회의 질서는 절대적 가장권의 행사로써 유지되어 가정 생활은 지배와 복종이라는 엄격한 주종 관계 속에서 화목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 화목이 개인에 의하여 결코 파괴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가정을 성역처럼 지켜왔다.²⁷⁾

그러나 이렇게 지켜져 왔던 가정도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본 가족 갈등의 구조를 바탕으로 그러한 가족 갈등이 일어나게 된 요인과 전개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소설에서 보이는 다양한 가족 갈등 유형 중에서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부, 부자,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갈등 요인과 전개 과정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서, 가족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적인 심리적 요인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심리적 요인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서 보기로 한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생물학적 욕구와 심리학적 욕구가 있다. 그런 만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도 다양하

27) 김재은, 「한국 가족의 심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p. 228~229.

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동기와 환경이 제공한 기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Maslow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aslow는 다음과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즉 그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로부터 이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된 후에야 중요성을 띄는 복잡한 심리학적 욕구까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수준에 있는 욕구들이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만족되어야만 그 다음 수준의 욕구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²⁸⁾



Maslow의 계층적 욕구

28) 이훈구 역, 『현대심리학개론』(정민사, 1986), pp. 274~275.

그런데 인물들의 이런 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서 좌절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때 좌절감이 생겨난다. 환경의 방해, 사회적인 제약, 개인의 한계 등이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좌절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동기적 갈등이다.²⁹⁾ 그리고 목표가 차단될 때 즉,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들이 취하는 행동은 공격, 무관심, 퇴행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격이다.

좌절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고 불행해 하며,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의 근원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공격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기서 공격이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건 언어적이건 상처를 주거나 재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닌 행위라고 규정된다. 중요한 말은 “의도”이다. 그러나 의도된 공격적 행위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 즉, 부, 권력, 지위 등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공격을 단순히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한 적의적 공격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적 공격으로 분류했다. 도구적 공격은 자기 방어를 위한 싸움과 도둑질하다가 공격하는 것, 자기 힘과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 등을 포함한다.

프로이드는 공격을 하나의 기본적 본능으로 보았다. 죽음에 대한 본능 에너지는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내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외형적 공격을 통해 외적으로 나타나거나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방출될 때까지 유기체 내에 계속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프로이드계 이론가들은 공격이 내적 충동이나 본능이 아니고 좌절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좌절 - 공격 이론은 어떤 사람이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면 공격 욕구가 유도되며, 이 공격 욕구는 자기에게 좌절을 가져오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공격의 표현은 충동을 감소시킨다. 요약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격은 욕구 좌절에 대한 주된 반응이다.³⁰⁾

29) 상계서, p. 481.

1. 고부 갈등

전통적인 한국 가족은 세대가 연속해 가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이며, 횡적인 부부 관계보다 종적인 관계 즉 직계 존속에 대한 일방적인 봉사 관계가 존중되는 직계 가족으로서 가족의 영속을 강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³¹⁾ 그러므로 한국의 가족 관계 중 가장 지배적인 관계선은 부자 관계라 할 수 있다. 부자 관계의 이와 같은 지배적, 상하적 주종 관계는 나머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성별, 세대별로 위계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천시되는 풍조에서 여성의 가족적, 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여성은 남편 친족 체계 내에 혈연상 지위를 차지하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남편의 부계 친족의 일원이 된다. 따라서 부계 가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장 큰 의무를 행하지 못한 것이 되고, 시댁에서 정당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들의 존재는 여성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므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이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인격보다는 '가정'이라는 단위에 가치 지향성을 두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단절되고 직접적 자기 표현도 금지된 사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이자 자기 실현의 목표이며 통로이기도 했다.³²⁾ 따라서 부계 가족의 구조는 여성에게 득남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특수한 모자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모자 관계는 아들의 성장과 함께 더욱 밀착하게 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쏟는 정성과 애정이 며느리가 생기면 상대적인 배척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며느리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은 정서적 관계가 밀접한 대상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자아

30) 상계서, pp. 280~282.

31) 최재석, 「한국 가족 연구」(민중서관, 1975), p. 215.

32) 이광규, 「한국 가족의 구조 분석」(일지사, 1975), p. 193.

정체감을 확립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성숙하기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적절한 분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가 증대하면서도 동시에 의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양면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반대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³³⁾ 이러한 양면적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하에서 남편의 애정을 받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달리 애정을 투사하여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들이 성장하여 고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미성숙한 아들의 역할로 인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적 가족 관계에서 고부 관계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애정 교류에서 불균형 상태로 출발하여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있게 된다.

이처럼 가정 생활 전반에 걸쳐 고부간에 대립되는 욕구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충돌 상태와 불만 상태의 부정적, 주관적 태도인 고부 관계는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매우 복잡한 구조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 갈등 요인으로는 주도권 다툼,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간의 괴리, 애정 다툼 등이 있다.

먼저, 가정 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세력 구조면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 이것은 가정 관리자로서 최대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주부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다. 며느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기는 역할 구조면에서의 갈등은, 시어머니가 가정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과는도 연관이 된다 하겠다. 또한 애정 구조면에서 보면 인생의 목적을 거의 자식의 성공 내지는 자식에게만 두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재정립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며느리를 자신의 아성에 도전하는 경쟁자, 침략자, 공격자로서 인식하게 된다.³⁴⁾ 이러한 감정은 젊은 시절 심한 시집살이를 경험했거나 남편의 애정을 별로 받지 못했던 시어머니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부 갈등은

33) 이기숙, "한국 가정의 고부 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5), p. 8.

34) 이광규(1975). 전계서, p. 122.

며느리에게 가정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불안감, 며느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미움,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먼저 계모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그린 <치악산>을 살펴보도록 하자.

빅돌이 자를 씨에 계모가 빅돌이를 미워하던 마음이 일 년 삼백 룡십 일에 날마다 달마다 휘마다 모힌 거시 치악산 갓치 싸엿쓸 터이나 무형무적한 사름의 마음이 라 남의 눈에 보히지는 아니호엿더라 빅돌이 장가든 후에는 그 계모가 빅돌이를 미워하던 마음으로 빅돌의 안희의게 레물 쥬듯 움겨 쥬엇더라

(치악산, 「아세아전집」2, p.16.)³⁵⁾

계모시어머니가 전실 소생을 미워하는 감정을 아들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갈등은 시작된다.

(김) 이이 만만흔 년은 며느리의게 욱을 먹고 며느리 종년의게 악담을 드리도 호 슈연홀 곳도 업고노 오나 그만 두어라 우리 모녀 다 업셔지면 흥씨택이 잘될 터이다 팔자가 오작 사나운 년이 남의 후취택이 되앗겠느냐 ... (중략) ... 오날밤 너로 너를 쳐죽이고 나써지 죽어서 여러 사름의 소원이나 푸러 쥬깃다 호더니 남순이를 광광 두드리며 독살푸리를 호니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13~14.)

(김) 여보 그레지를 마르시오 그리 어미의게 뒤여지도록 미마진 남순이는 압호지 아니호고 시어미더러 욱호고 악담호던 며느리가 너 소리에 속이 압홀가 염녀가 되나 보구려 너가 며느리의게 무엇을 그리 심히 구러서 그런 소리를 호시오 (하략)

(치악산, 「아세아전집」2, p.18.)

<치악산>의 김씨부인은 계모시어머니로서 며느리와 의 갈등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전실 소생 빅돌이를 기르면서 증오했던 계모의 본성

35) 이하 띄어쓰기는 필자가 인용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편의상 한 것이다.

에 며느리를 얻고는 시어머니의 근성이 추가된 셈이다. 김씨부인은 아들을 대신하는 며느리에 대한 적개심에서 며느리 이씨부인과 종 검홍이의 악담을 듣고 남편 홍참의에게 고해 바친다. 그러나 홍참의는 며느리를 두둔하며, 시어머니로서의 체면과 여가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김씨부인은 오히려 열등 의식과 여가장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여기에서 <치악산>의 김씨부인인 경우는 고부 갈등 요인을 무엇보다 세력 갈등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녀는 시어머니이면서 계모라는 점으로 인해 특히나 가정 내에서 여가장으로서의 지위에 많은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남편에 의해 동조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안해지게 되고, 당연히 불안 요인을 주는 상대에 대한 미움과 함께 그러한 요인을 없애려는 심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녀는 며느리가 가문 좋은 이판서의 딸이라는 점에서 시기심과 열등 의식을 더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점점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과 질투심으로 표면화된다. 그리하여 결국 김씨부인은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모해한다. 백돌이 장인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 떠난 것을 근거로 홍참의에게 며느리 이씨부인이 미움을 받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씨부인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는 것 같이 일을 꾸민다.

이 작품에서는 고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인물로 김씨부인의 소생인 남순을 들 수 있다. 남순의 등장과 행위는 <장화홍련전>, <콩쥐팍쥐전> 같은 계모형 고소설에서 악행을 집안 식구가 함께 한다는 점과 연결이 된다. 즉 그녀는 김씨부인과 부모자식간으로 다른 인물들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그 갈등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자식간이면서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이 어렵고 무조건적 추종이 가능한 남순의 경우는 이런 점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다.

(부) 이 고성을 하면서 늙도록 살아 무엇하게 나는 마님도 마님이어니와 제일 자근 앓씨 알미위 못 살깃다

(검) 글세 말씀이올시다 이 맥 자근 앓씨는 아마 여우가 되다가 사람 되앗지 나이

열 혼 살에 눈치는 엇지 그리 빠르든지 귀신이 무엇을 먹고 사누 고런 거슬 아니
잡아가니 … (중략) … 부인과 검홍이가 서로 사정을 말하며 서로 위로를 흐느라고
밤 가는 줄을 모르고 안졌는더 안방 뒤마당에서 건넌방 뒤로 도라오는 모퉁이에 …
(중략) … 은근이 기 쫓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그 집 자근 아씨의 목소리라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9~10.)

거기다가 검홍이에 의해 ‘이 댁 작은 아씨는 아마 여우가 되다가 사람 되었지’
라는 말로 묘사되는 남순이다. ‘말참견이라면 뒤에 서지 않든’ 그녀는 작품 서두에
서 이씨부인과 검홍이가 하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엿듣고
는 미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한다. 그럼으로써 김씨부인이 이씨부인에 대
해 본래 가지고 있던 미움을 더욱 부추긴다. 그리고 남순의 고자질에서부터 김씨
부인이 남편 홍참의에게 자신의 처지가 수용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과 이씨부인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부 갈등
의 강도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부 갈등에서만 아니라 다음에서 볼 부자 갈등과 처첩 갈등
의 전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악인형
인 상전을 도와 사건 전개에서 실제적인 계획과 실행을 맡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
분을 상승시키려는 노비들이다.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들의 갈등 요인을 시대나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신소설에서는 표면상의 계급 타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계급 의식이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가족 갈등을 다룬 신소설에는 고소설보다 종의 역할이 뚜렷하게 부
각된다. 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간과해 버릴 수 없는 또 하나는 하층
계급의 인물들이다. 문학 작품이 시대나 사회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다고
할 때, 신소설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인공인 전설 소생의 기능은 약화되어 있는 데서 그
러한 증거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종의 행위는 선악의 이원적인 대립상을 이루
며 나타난다. 종이 갖는 행위의 이원성은 그들의 윤리 의식보다 계층적 신분 문제

의 갈등과 더 관계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설에서 볼 수 있는 선악의 전형적인 모습보다 오히려 계층 문제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속량을 얻기 위해 음모에 가담하는 종을 볼 수 있다.

종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신소설의 시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 신분 제약이란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과거 응시, 군역, 제사, 혼인, 의복 심지어 사소한 생활 양식까지 규제했다. 천민들은 이런 점에서 가장 많은 활동의 제한 뿐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다. 사회 최하층에서 사회에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늘 보잘 것 없는 물질적 대가와 정신적 천대를 받았다.

그러던 것이 갑오경장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다. 당시는 신분 해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노출된 시기이므로 신소설에는 전시대의 지배 계급이었던 양반과 피지배 계급이었던 상민 혹은 천민과의 대립이 가정 관계를 통하여 잘 드러났다. 특히 천민들은 갑오경장을 통하여 신분 제도가 철폐되자 서서히 구습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자기 신장을 모색하게 됨과 아울러 반항 의식도 나타나게 되었다.

신소설의 시대 배경으로는 노비가 사회 제도 개혁으로 신분상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방편이 필요했다. 그것은 곧 돈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주인의 결단에 따른 속량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신소설에는 속량 문제가 언급되고 이를 생취하고자 죽음까지도 무릅쓰는 모습을 등장시킨다. 신분 상승을 위한 강한 욕망을 보이는 것이다.

속량을 갈망하는 노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폭력이나 살인 행위를 자행하는 인물로 전락하고 만다. 오직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행위만이 크게 부각될 뿐이다.

신소설에 나오는 계모는 그것이 악인이라는 데서 일치될 뿐 아니라 그 성격, 그 음모 행위가 모두 유사하고, 그 계모의 侍奴는 의례히 그의 앞잡이로서 같은 계열의 악인으로서 수다스럽고 간사한 인물인 반면에 전처의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시노

는 선인형에 속하되 그들 역시 유형적이다.³⁶⁾

백철은 개화기 소설에서 악주(惡主)의 대표적 예를 계모에서 찾았다. 선주(善主)로는 전처 아들과 그 며느리를 들었으며, 이재선은 악비(惡婢)의 특징으로 교활한 간계, 돈과 속량에의 강한 욕망 등을 들었다. 이재선도 물론 선주 → 선비, 악주 → 악비와 같은 묶음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악주 → 악비의 짝이 어떤 심리적 배경에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악비의 존재를 단순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신소설에서는 악비 등이 작품 속에서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물로 설정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적인 갈등을 느끼고 악인의 편이 되어 전실 소생을 모함하는 종으로 <치악산>에서는 옥단과 고두쇠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씨부인을 내쫓기 위해 옥단과 고두쇠가 김씨부인과 밀계하여 주선하고 있다. 그리고 송도 부자 최치운이 흥참의 며느리 이씨부인을 탐내어 종 옥단에게 '돈을 몇 천냥이든지 주어서 ... (중략) ... 먹고 살 뒤까지 대어 주마' 하며 접근한다.

<치악산>의 옥단은 김씨부인의 며느리 이씨부인에 대한 미움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김씨부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이, 자신이 더 속상한 듯이 보이기 위해 '치마끈 끝에 고추가루 물을 들였다가 김씨부인 앞에 와서 그 치마끈으로 눈을 흠착흠착 씻으니 눈에서 불이 나는 듯하며 눈물이 나는지라' 와 같이 미리 준비까지 하는 철저함도 볼 수 있다. 그녀는 이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줄 김씨부인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옥) 원네를 상급만 만히 주시면 마님께 원귀를 맺지 아니하도록 만들고 감씩 갖
치 잘 죽여 버릴 도리가 잇시오

(치악산, 「아세아전집」2, p.82.)

마님이 암만 저렇게 날뻐셔도 너 소원을 아니 푸러쥬면 너가 조홀 도리를 아니

36)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근대편)」(백양당, 1949), pp. 23~24.

가르쳐 줄 걸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눈을 깜자거리고 안졌는데 ... (중략) ... 상을 타면 타고 말면 말지오 마님 입으시던 치마를 어더 입고 잇셔요 이런 큰일을 하면 마님게서 흰네를 속냥이라도 하여 주시고 단구역말 압들에 잇는 보논을 다 주시더 리도 약가울 것 무엇 잇습닛가 ... (중략) ... 부인은 옥단의게 속냥하여 줄 언약을 단단히 하고 옥단이는 건넌방 맛씨를 업시 버릴 죄를 한다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83~85.)

옥단은 속량을 받으려는 목적 하나로 갖은 못된 짓을 거리낌없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계모시어머니 김씨부인과 함께 며느리 이씨부인을 부정한 여자로 모함하여 홍참의까지 믿게 한다. 그리고 며느리 이씨부인을 치악산에 갖다 버리는 계책을 꾸며주고는 김씨부인에게 속량과 재산을 요구한다. 고소설에서처럼 악한 주인 밑에서 무조건 충성하는 노비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 향상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옥단은 최치운과 계모시어머니 김씨부인을 이용하여 속량과 재산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인집 며느리를 가해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옥단의 남편 고두쇠도 속량을 바라고 주인집 며느리를 치악산에 갖다 버리고, 홍참의 집에 도깨비가 나타나자 또 속량할 욕심으로 도깨비를 잡으러 가다 죽는다.



소인은 상전택을 위하야 소인의 혼 몸으로 그 죄를 다 밧고 이 때만 성하게 홀 도리가 잇스니 마님게서든지 령감 마님게서든지 소인이 이 택의 충노인 줄이나 아라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략) ... 죠 방정마진 요 귀신 쏘차버리면 이번에는 우리 택 마님이 우리 너외를 속냥 아니하야 줄 슈는 업지 속냥뿐이나 이번에는 참 수는 다 조것 씨문에 홍참의 택이 망홀 거슬 나 씨문에 성하고 보면 우리택에서 날을 논 섬직이나 주어 살려싸지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190~192.)

그들은 재산에 대한 탐욕이 많고 속량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였지만 오직 욕망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와 현실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양반 쪽에서 내미는 속량의 약속은 살인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그런 일을 실행하고 난 뒤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고부 갈등에서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반해 전실 소생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가해자인 계모시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그 고난을 헤쳐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리씨부인이 검홍이를 불너 압혜 안치고 눈물이 비 오듯 흐며
(부인) 이이 검홍아 세상에 이런 년의 팔즈가 잇단 말이나 니가 이 방구석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드러 안졌는디 무슨 죄가 잇서서 마님이 저럿케 나를 미워하시는 지 모르깃다 ... (중략) ... 흐로 빗비 죽어서 이 고성을 아니하면 니 신세가 조흠 거시다 니가 이 댁에 시집 왔다가 니 고성도 마니 흐고 부모의게 욱도 만히 먹였다 (하략)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47~48.)

에그 너가 격근 일을 생각홀수록 소름이 죽죽 끼치고 진저리가 부득부득 치히는 구나 오나 호강을 호앗던지 고성을 호앗던지 지낸 일은 꿈 갖치 생각하면 그만이지 마는 또 무슨 고성이 남았는지 생각을 홀수록 그거시 근심이라 ... (중략) ... 흐더니 웅고리고 안진 치로 눈을 짝 감으면서 우물 속으로 쭉 썩러지논디 물 속에서 물구 나무를 섰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치악산, 『아세아전집』2, pp.167~168.)

전실 소생은 고난에 처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또는 운명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씨부인은 계모시어머니에 대한 다소 내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는 나약한 태도를 보인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처해 보려는 생각도,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겨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장래에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만 걱정하면서 자살을 기도한다.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시대나 사회 환경과 관련된 고부 갈등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안의 성>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모친은 그 아달을 익지중지하는 즈손인 고로 상현이가 만일 어더를 가서 도라
올 귀흔에 오지아니하면 심히 근심을 하여 문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터인데
(안의 성, 「계명전집」14, p.412.)

이 작품에서는 시어머니가 이처럼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과부인 자신을 포함
한 가문의 안녕을 모두 아들에게 걸었다. 그런 만큼 시어머니는 당연히 새로 들어
온 며느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 모친은 별안간 얼굴에 노기를 씌고 고성을 질너 호는 말이 여보아라 내가 죽
히 그런 편지 밧깃다 너 눈으로 당장 보는 일을 그러케 방식을 할 제야 못 보는 터
에 무슨 짓을 못 하깃나나 디져 너즈라 호는 것은 품힘을 한번 잘못 가지면 다시
씻지 못홀 허물이어날 네가 힘실이 그러하고 엇지 남의 귀흔 며나리가 되깃나나 부
정흔 힘위가 이왕 현로흔 이상에 내가 발명을 히도 쓸 더 업고 너가 잔말을 히도
소용 업스니 우리 아모 말 말고 고만두즈 ... (중략) ... 집안이 망하랴닛가 별일이
다 있다

(안의 성, 「계명전집」14, pp.454~455.)

그러나 며느리에 대한 역할 기대는 주변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즉 상현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봉자와 자신의 딸인 영자의 모함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니 자연 아들을 위하고 가문을 위하여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역할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괴리에서 고부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모) 상현아 네가 그제 사룸에 말이나 그러면 영자가 그런 것을 보고도 아모 말
아니하여야 올탄 말이나 영자의 마음이 변흔 것 아니라 네 마음이 변혔다 엇지 호
자고 경의 갖치 못된 년을 두둔하여 영자를 천하에 악흔 년을 만드나나 네가 악흔
계집을 바리지 안코 도리혀 순량흔 동귀에게 흥흔 허물을 돌려 보니고자 하니 이는
인륜이 멸절호는 일이니 네가 별안간 이럴 슈가 잇느냐 기닷케 홀 것 업다 네가 지
금 경의와 이흔홀 터이나 아니홀 터이나 말 혼 마디만 하여라 하며 더욱 분노함을
견디지 못호는 모양이라

(안의 성, 「계명전집」14, p.489.)

거기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부부의 인격 관계 상승은 이따금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고부 사이에 개입하는 질투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것이다.'³⁷⁾는 견해와 같이 부부 관계를 중시하면서 며느리를 두둔하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이 며느리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부인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큰 만큼 아들이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섭섭함 또한 클 것이다. 특히 시어머니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며느리를 두둔하는 대신 자신의 딸이면서 상현에게는 누이 동생인 영자를 질타하는 아들에게서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며느리에게 미움과 질투로 전이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앞서 본 계모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다룬 <치악산>과 친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다룬 <안의 성>에서는 고부 갈등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며느리를 가해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안의 성>에서 친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모함을 듣고 간접적인 가해자로만 등장하고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모시어머니가 가해하는 경우와 다른 면을 보여준다.

또한 <안의 성>에서 친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정한 행실이 있는 간부로 모함하여 이혼을 정당화시켜 친정으로 쫓아보낸다. 이러한 갈등 구조 역시 계모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계모시어머니는 주색가나 불량배에게 며느리를 팔거나 내다버리는 데 반해 친시어머니는 이혼을 정당화시켜 친정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시어머니이면서도 '계모'라는 조건 여부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모'라는 위치는 그만큼 가정 내에서 많은 갈등 요인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부자 갈등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며느리 가해에 동조하는 제삼의 인물로는 정애의 연적 정봉자와 시누이 영자를 들 수 있다.

37) 이재선 외, 『개화기문학론』(형설출판사, 1981), p. 47.

어머니 어머니 마음에는 경익이 암전하고 유순훈 줄노 아시지요 아직 보아서는
알 슈 업습니다 아직 갓히셔는 어머니의 지극히 효성스러운 듯 오라바니의 극진히
공손한 듯 아주 암전을 빼지만은 그러흔 속에서 쓴 일이 잇단 말이야요 지금은 고
러흔 간악에 빠져서 … (중략) … 그년이 제 친정 건처에 약속한 서방이 잇서 동성
동스를 밍세하얏스나 단지 지산이 업슴을 혼야 혼 계교 속으로 돈 모호러 우리집
으로 온 것이야요 제 말을 안이 드르시고 괴여히 혼인을 하시더니 장차트 죠흔 쏘 보
실 걸이오 하며 빅방으로 모함을 하는 것은

(안의 성, 「계명전집」14, pp.445~446.)

정애는 시누이 영자를 지극히 우애하고 공경하나, 영자는 무슨 마음에서 그리하
는지 정애를 미워하며 그 모친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한다. 예로부터
고부간에 이간을 붙이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는 간사한 시누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극진히 하는 사람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자는 모함을 하는 것이다. 영
자가 정애에게 하는 구박은 특별히 보통 사람보다 더욱 심하여 정애의 일생을 비
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영즈가 결코 제 마음으로 그리하는 것이 안이오 그것이 엇던 스람의 교스이나 흐
면 당초에 정봉즈가 자기의 녀즈 직분은 직히지 안코 죠흔 남편은 엇고즈 하는 상
각으로 항상 김상현을 유의하고 영즈에게 소기까지 하얏다가 필경은 낭피에 도라간
고로 영즈의 마음 속의 칼날 갓흔 함험을 먹고 어느 써던지 경익이 눈물노 세월 보
너는 것을 너 눈으로 보리라 하고 영즈로 자기의 조아를 숨아 위선 모암함에 착슈
를 혼 것이라

(안의 성, 「계명전집」14, p.446.)

며느리 가해를 충동하는 제삼의 인물로 시누이 영자를 볼 수 있는데, 영자 뒤에
는 김상현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정봉자의 한이 있는 것이다. 상현을 짝사랑하던
봉자는 결혼으로 이끌어 가려고 전력을 다하지만, 상현은 정애와 결혼해 버린다.
극도의 연정이 질투심과 적의로 변하여 봉자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
법을 가리지 않는 가학성과 잔인성을 보인다. 여기에서 봉자는 보이지 않는 직접
적인 가해자로 나타난다. 영자와 공모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정애가 눈밖에 나도록

부정한 혐의를 씌우고 간부로 모함한다. 결국 상현모의 협조까지 얻어 정애를 추방하고 끝내는 정식 이혼을 시키게 한다.

봉자는 상현이와 결혼을 하라고 영조와 부동하야 궁궐극악한 계교를 너다가 겨우 이미흔 경인의 신세만 참혹하게 만드렸을 뿐이오 정작 목적은 달치 못하야 제반 경영이 모다 허스가 되리라 봉자 가 만일 여간만 악한 스펀이 아니면 이왕 잘못한 것을 후회도 할 터이오 … (중략) … 제 쏘에는 장리가 실망이 되야 타락심을 먹고 상말노 화증김에 서방질 한다고 음란한 핑실만 점점 느러서 … (중략) … 화효월석에 무흔흔 자미를 붓치니 저간에 부랑피류 쳐놓코 경봉조 모르는 스펀이 업고 조선 심삼도에 망신피가흔 자난 경봉조에게 다만 돈푼이라도 안이 썩앗긴 사람이 업더라
(안의 성, 「계명전집」14, pp.528~529.)

그러나 봉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김상현 내외를 이혼시키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점점 타락하여 간다. 이러한 것은 상현모에게 보여주는 요조 숙녀의 면모와 한 탕녀로 타락해 가는 모습 사이에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먼 거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한 이중성에 대해 조금도 수치심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서 그녀의 인물됨을 또한 볼 수 있다. 이같은 봉자의 철저한 성격 파탄은 고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계모나 첩과 같은 악인계열 인물과 연결이 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이나 타락에 대해 전혀 연연해 하지 않는, 성격 파탄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들을 <안의 성>의 정봉자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점은 사건을 권선징악적 결말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

여보시오 왜 그리심잇가 당신이 이와 갓치 상흔실 것 갓흐면 보는 이년의 마음이 엇더흐깃슴닛가 일전에 말씀흔 바와 갓치 부모는 하늘이라 하늘이 무고흔 빅성은 죄 주는 법이 업고 부모가 올흔 자식은 미워흔 일이 업느니 나는 무엇을 잘못하얏던지 부모피셔 잠시 오히흔심인즉 그 부모피셔 마음을 돌이키는 날은 운권청친과 갓할 것이어늘 이 갓치 하실 것 잇슴닛가 돌여 생각흐시고 참으십시오
(안의 성, 「계명전집」14, p.494.)

(경) 사경이 그러하신 게야 제가 엇지 고집을 홀 슈 잇습닛가 저는 허라는 더로
흐릿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저 바리시지 아니 흐실는지 오
머리를 숙이고 늦겨가며 우니

(안의 성, 「계명전집」14, p.496.)

<안의 성>의 정애에게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스스로 헤쳐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혼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소극적인 반응만 보인다.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다만 시어머니의 오해가 풀려 다시 옛날처럼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기다릴 뿐이다.

다음으로는 고부 갈등과 같은 가족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적인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본 인간의 욕구를 작품과 직접 연결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고부 갈등을 다룬 것 중에서 먼저 <치악산>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는 가해자인 계모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바라는 안전 욕구와 가장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존심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가해자가 친시어머니의 경우인 <안의 성>에서는 아들과 가정의 안전과 편안함을 바라는 안전 욕구가 지배적이다. 또한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들에서는 도구적 공격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부 갈등을 보이는 <치악산>, <안의 성>에서도 (계모)시어머니들이 자신과 가정의 편안함을 지키려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고부 갈등은 가정에서의 주도권,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괴리, 시기심과 열등 의식 등에서 그 갈등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치악산>에서는 계모시어머니의 안전 욕구와 자존심의 욕구에서, <안의 성>에서는 친시어머니의 안전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같은 심리적 요인은 (계모)시어머니들이 자신과 가정의 편안함을 지키려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부 갈등을 보이는 가정소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소설에는 고부 갈등을

다른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효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는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도, 그것을 작품으로 다룰 수도 없었다. 그러나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신소설에 이르러서는 사회 변화와 함께 개인 의식의 성장 등을 기반으로 그러한 갈등이 표출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시대와 사회 변화가 가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 가족간에도 의식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작가 의식의 표현일 뿐 아니라 독자를 의식한 결과로, 고소설과는 다른 신소설의 특징이다.

2. 부자 갈등

한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이전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개인이 접촉하는 가장 최초의 보편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족은 주로 혈족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친밀한 정의 교류로 결속된 공동 운명체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와 부계 친족 중심의 사회이며 유교를 정치적, 도덕적 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사회였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사회의 최상 윤리로 하는 유교 사상은 무엇보다 전통 사회의 부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 유교적 전통에서는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할 의무를 지닌다는 효도의 절대성 내지 보편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부자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부자 갈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을 <설중매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처의 죽음으로 새로 들어온 후처와 전실 소생 사이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자 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공동 사회적인 가정이 이익 사회적인 가정으로 변질되며, 그 결과 가족 관계가 타산적으로 변모되고, 그리하여 가족 갈등이 야기된다.³⁸⁾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주요한 갈등 요인은 먼저 계모가 존재 의의를 인식하게

38) 퇴니스, 황성모 역,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삼성출판사, 1982), p. 251.

됨에 따라 한 개체로서 자신의 신분이나 계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존재 의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의식의 성장과 여권의 신장'³⁹⁾을 위한 문명 개화 의식과 일치하고 있다.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는 가정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주도권 다툼이다.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요인은 기존 가족성원들의 계모에 대한 소외감과 또한 계모의 재산권에 대한 욕망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조선조에 비하여 개화기에는 사유 재산 제도가 팽배함에 따라 계모가 기존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관습적인 재산 상속 제도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키면서, 재산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계모와 전실 소생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켜 결국 전실 소생들이 죽거나 축출당하게 된다. 주도권 다툼은 전실 소생과의 관계에서 성립되지만, 애정 편중은 계모에게는 남편이고 전실 소생들에게는 아버지인 가장에 의해 일어난다.

계모들은 전처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취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남편의 애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가정소설에서 대부분 가장들은 전처나 전실 소생들에 대해 지나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들의 이러한 애정 편중은 계모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여가장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는 전실 소생들에 대한 학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남편의 전처나 전실 소생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 편중이 작품의 중요한 갈등과 비극의 요인이 된다. 그녀들은 가정에서의 존재 위치와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 전실 소생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계모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인식하고 구현하는 방편으로 전실 소생을 죽이려고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 계모의 갈등 요인은 주로 자신의 존재 의의와 재산권에 대한 탐욕, 가장의 애정 편중, 그리고 전실 소생의 출중함에 대한 열등 의식 등에서 야기되고 있다.

혼인혼 지 삼일 후에 옥회 남미를 가장 자기가 나온 즈식 갖치 아모 험점업시 지

39) 이재선,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사학』 제2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207.

넋더니 망령이 드러든지 광증이 드러든지 미운 마음이 나기 시작을 한다 ... (중략)
... 김진스 드러오면 옷지 그리 귀이호는 빗들 얼굴에 닳타니고 알장알장하다가 김
진스의 발즈취만 써나면 혼갈 갖치 들복가 가며 구박을 호더니 그 후에는 안방에다
발을 디이지도 못호게 호며 건는방에다 쥐소리도 못호게 남미를 죄인 가두드시 나
오지도 못호게 호니

(설중매화, 「계명전집」8, pp.286~287.)

안씨 그 꼴을 그리 이지중지 호는 모양을 보고 더욱이 심사가 뜻치 못호여 자기
남편을 목주머니를 만들어 옥회에 익미호는 소리를 지어닌다

(안) 여보 령감이 출입을 호시면 니 방에 건너 와서 이야기도 호고 바나질도 가랏
쳐 달나호는디 령감이 출입을 호셋다가 드러오시면 번번이 제 방으로 건너가니 이
상호 일도 만아요

(설중매화, 「계명전집」8, p.291.)

<설중매화>의 안씨는 전실 소생에 대한 증오심과 질투심으로 옥회 남매를 구박
하는데, 남편인 김진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의 전실 소생에 대한 애정 편중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정 내에서 자신
의 존재 위치를 재인식하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갈등은 시작된다.

안씨 옥회를 박더타 못호여 나종에는 축출지심(逐出之心)이 나서 시비 난향이로
더부러 흥계를 의론호다

(안) 이이 난향아 즈근 아씨인지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보기가 시로니 저거술 엇
지호면 보지를 안코 한시라도 편안이 산단 말이나

(설중매화, 「계명전집」8, p.287.)

안씨는 처음에는 옥회 남매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다가 언제부터인가 미운 마음
이 생기기 시작한다. 김진사 앞에서는 귀애하는 척하다가 김진사가 나가기만 하면
구박을 하는 다른 면을 보인다. 그러다 김진사가 죽고 난 뒤에는 거칠 것이 없이
아예 없애 버리려는 생각까지 한다. 이런 그녀에게서 기본적인 윤리 의식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면만을 볼 수 있다. 계모 안

씨에게 전실 소생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뜻대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데 방해 요소이며 미움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결국은 전실 소생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계모는 하수인을 통해 전실 소생을 살해하려 한다. <설중매화>에서 계모 안씨는 종 난향이와 모의하여, 친정오라비 재덕을 시켜 전실 소생인 옥희를 겁탈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로 한다. 그리고 춘국은 독약으로 살해하려 하고, 그것이 안되자 강물에 넣어 죽이게 한다. 계모의 악성은 전실 소생이 계모에게 나타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계모 스스로의 열등감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는 데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계모 안씨의 갈등 상황에서 그 동생인 재덕의 등장과 행위는 고부 갈등을 다룬 <치악산>의 남순이 경우와 유사하다. 즉 그 역시 계모형 고소설에서 악행을 집안 식구가 함께 한다는 점과 연결이 된다. 그는 작품 속의 악인형 인물과 남매간으로 다른 인물들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누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재덕의 갈등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덕이는 본래 그런 일에는 발 벗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라 누이에 마음이 합당하도록 호느라고 흥정을 켜다 ... (중략) ... 경 그러실 것 갓흐면 혼 가지 허는 슈가 있는데 누님이 그리 호실는지요 안씨는 지덕의 말을 듣고 얼굴에 김분 빗흘 썩우고 ... (중략) ... 지덕이 누의미 더답흐는 것슬 두고 누이에 압흐로 닥아 안지며 귀에다 입을 더이고 무어시라고 소근소근 한참을 흐더니 안씨가 연히 싱글싱글 우수며 (하략)

(설중매화, 「계명전집」8, pp.297~298.)

거기다가 재덕은 '본래 음흉한 사람'으로, 누이인 안씨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생으로 그려지고 있다. 안씨가 옥희 남매를 미워해서 없애려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본래 그런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 그 처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다. 그 역시 누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간악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지) 허허 그러치 그대를 니가 차져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누님이 너를 살히
코즈 흐시기에 니가 그리호오리다 호고 돌니여 생각흐기를 어더셔든지 너를 만나거
든 이리흔 말을 호고 니고 나와 너외지의를 미저 한 빅 년 살즈 흐엿더니 오날밤에
여기서 만날 줄을 엿지 꿈엔들 생각흐엿스리오

(설중매화, 「계명전집」8, p.352.)

그리고 그는 누이의 일을 앞장서서 해 주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개인적 욕심
을 채우고자 한다. 그의 개인적 갈등 요인은 난향이와 옥희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는 난향이를 취하려고 감언이설로 여러 번 꾀다 마침내 옥희의 도망으로 난
향이 의심을 받게 되자 약정서를 써 주고 는 목적을 달성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
고 옥희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의 갈등 요인을 볼 수 있다. 이런 나름대
로의 욕구와 의도가 있는 까닭에 그는 누이인 안씨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
다.

이 외에도 <설중매화>에는 부자 갈등을 조력하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노비 난향이 있다.

난향이는 본리 간스호고 요악한 기집아히라 이전에는 박씨부인이 잇는 고로 옥희
남미를 위호야 쥬엇지마는 지금 당호야는 안씨가 상전이요 세력이 잇는지라 간사흔
목소리로

(난) 글세올시다 장장호일에 그 쏘를 보시고 엿지 지너심잇가

(안) 예그 그리호기에 말이다 진작 니가 죽어 안 보든지 무슨 싸닥이 잇셔야 살겠
다

(난) 예그 망령의 말슴도 호심니다 조근 아씨로 호야셔 마님이 도라가시든게 무어
시온잇가 사위스러운 말슴도 호심니다 ... (중략) ... 령감이 아시고도 아모 말슴 못
호시게 호여 니여 쏘든지 죽이던지 히야지요 소비의 마음도 이럿케 답답홀 적에 마
님이야 오작 호실나구

(설중매화, 「계명전집」8, pp.287~288.)

난향이는 상황 판단이 빠르다. 현재 상전이요 세력가인 안씨에게서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자연 전실 소생인 옥희 남매에게는 등을 돌리게 된다. 전후 상황을 알면서도 전실 소생인 옥희 남매를 미워하고 없애 버리려는 안씨 비위를 맞추기 만큼 자신의 이익에 밝고 간사하다.

이런 난향이는 전실 소생을 모함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적 상승을 꾀한다. 또한 계모 안씨의 오라비인 재덕이가 동침을 요구하자,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를 받아 놓는 등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갈등은 마침내 극도의 포악성으로 나타난다. 난향은 옥희의 살해에 실패하자 다시 그 동생 춘국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계모 안씨에게 속량과 재산을 요구한다.

난향이 집 사주고 속양하여 준다는 말에 귀가 반짝 씩이고 정신이 바삭 나서 그 말을 칠팔월 박과 갖치 든든이 굿치려고 연히 지우쳐 묻는다

(란) 마님이 말씀을 하여 되기곳 하면 집을 경영 사 주세요

(안) 암- 그러치 성사되기곳 하면 집 사주고 속양하여 주마 점주는 체모에 너를 다리고 시럽슨 말을 하겠느냐 ... (중략) ... 안씨 귀에다 입을 더이고 무어시라고 한 참을 소근소근 하더니 안씨에 얼굴에는 희식이 나타나고 난향이는 입을 방글방글하며 사랑으로 나와서 지덕이를 다리고 드려오더니 안씨는 춘국이 모히힐 말을 하고 난향이는 옥희 모히힐 말을 하며 습인이 약속을 하였더라

JEJU NATIONAL UNIVERSITY (설중매화, 『계명전집』8, pp.323~324.)

난향은 재덕이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려 하자 ‘약정서’를 내어 보이며 자기와 결혼할 것을 요구한다.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난향은 계모를 조사하러 온 경찰관에게 계모 남매의 흉계를 폭로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이 신분 상승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종의 행위는 그 본성의 악함보다 신분 상승을 위한 집요한 행위가 더 부각되고 있으며, 그만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탐욕과 속량을 목숨보다 더 중시한다.

발그신 명턴은 구버 살피소서 옥희의 팔주 기박호와 칠 세에 모친을 여히고 또

십륙 세에 부친을 여히웁고 남민 서로 의지하와 셔산에 지는 희와 동역에 돛는 달
을 더하면 간장이 슬허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옥계에 돛는 풀을 보면 스투업시 눈
물이 비 오듯 흐여 지너웁더니 삼 연 후 계모를 어드미 성품이 불칙하여 박디흙이
심흔지라 ... (중략) ... 살아서 소용 업는 중 계모 남민의 흥계로써 이 몸을 죽이려
흙으로 오날날 이 물에 빠자 죽사오니 텃지 일월 성신은 옥희의 무죄흙을 구버 살
피소서 흐며 그 강물에 빠지엇더라

(설중매화, 「계명전집」8, p.278.)

<설중매화>에서 전실 소생인 옥희는 계모의 흥계를 우연히 엿듣고 도망하나, 자신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아닌 자살로써 해결하려는 소극성과 나약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또한 옥희는 동생 춘국의 죽음 소식을 듣고 광증을 일으키게 된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 전후 사정을 알아본다든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충격 때문에 자신조차 주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광증이 일어난 상태에서만이 계모 남매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보일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실 소생의 나약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전실 소생이 그의 적대자인 계모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지에서 방황하고 있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먼저 전실 소생의 나약성은 주동 인물들이 무주체, 무의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그만 일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상실한 주인공들의 태도나 행위는 곧 문명 개화의 피동성과 패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실 소생의 나약성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전통적인 윤리 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계모의 음모를 사전에 알거나 사후에 그것을 명백히 알고 난 뒤에도 그 음모를 밝히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전실 소생 자신이 소극적이고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효의 전통적인 윤리 의식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실 소생을 지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은 계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행위를 무력하게 만든다. 계모의 음모와 흥계가 피해자 당사자인 전실 소생 자신이 아니라 종이나 제삼자에 의해서 폭로되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 윤리 의식의 한 반영이기도 하다.

<추월색>은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을 엮어낸 <설중매화>와는 달리 친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다루었다. 이 작품은 친부자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설중매화> 보다는 자녀에 대한 가해 정도가 약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친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방해 요인이 없이 자녀에 대한 강하고도 변함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평소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거역한 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걱정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리시종 너외는 심세지락을 그 외설 정임의게만 붓치고 늙어가는 터이라 응석도 자미로 밧고 득살도 귀찮게 보며 근심이 잇다가도 정임이 얼굴만 보면 업셔지고 화증이 나다가도 정임이 말만 드르면 푸러지며 어디를 갖다오다가도 더문신에서 정임 이부터 차지며 드러오는 터이더니 정임이가 혼적 업시 혼 번 간 후로 정임의 거동은 눈에 암암하고 정임이 목소리는 귀에 징징하야 정임이 생각에 곤흔 잠이 번쩍번쩍 썩여 밧칠 것 갖치 지너는디

(추월색, 『아세아전집』7, pp.76~77.)

부인은 단지 그 쌀을 간 곳도 모르고 그리던 쫓헤 보고 심은 생각이 더욱 밧바셔 혼 말인디 그 남편의 더답이 이럿케 나가미 조조흔 마음을 참소 잇스느 원리 부인의 성정이라 쌀 보고 심은 생각만 느면 고만 다려 오라고 은근히 그 남편을 조르느 터이지만은 리시종은 그럿치 아니흔 리유를 그 부인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달달이 학자금 오십 원식 보너주며 ... (중략) ... 늙어갈수록 정임의 생각이 간절하야 몸이 좀 압흐기만 하면 마음이 더욱 처연흔 터이라

(추월색, 『아세아전집』7, p.80.)

<추월색>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서는 가치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발달은 세대간 차이를 심화시켜 전통적 가족 제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대와 근대화된 가치를 갖고 있는 세대의 충돌을 가져온다. 여기서도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보인다. 그러나 전통 세대인 부모와 새로운 세대인 자녀 사이

의 가치관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전도 현상을 보인다. 즉 이 작품에서는 근대화된 가치관을 지닌 부모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전개된다.

(정)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버지께서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글 가랏쳐 주셨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 또 식집 보낸다 하시니 부모가 혼 즈식을 두 스롭의게 허락하시는 법이 잇슴닛가 아모리 영창이 종적은 아지 못흐는 다른 곳으로 식집 가기는 죽어도 아니흐깃습니다

리시종이 그 말을 듯더니 벌떡 이러서며 정임의 머리치를 휘여 잡고 평상에 손지검 혼 번 아니흐던 그 쏘을 여긔저긔 함부루 쥐여 박으며

(리) 요년 요 못된 년 그게 무슨 방정마진 말이나 요년 허줄기를 쓴어 노홀네 내가 영창이 레단을 을 밧아싼 말이나 내가 영창이와 초례를 지닛싼 말이나 내가 간디 업는 영창이 심각하고 식집 못 갈 의리가 무엇이란 말이나 아모리 어린 년인들

(추월색, 『아세아전집』7, pp.33~34.)

(리) 요년이 어디 철 몰느서 흐는 말이오 제 일성을 큰일니고 부모의 가심에 못박을 년이지 ... (중략) ... 리시종은 율리 구습을 기혁홀 사상이 잇는 터인 고로 설녕 그 쏘이 파부가 되앗슬지라도 기가라도 시킬 것이오 정혼호앗던 것을 거릿겨서 쏘의 일평성을 그릇호지 아니홀 스롭이라 정임의 가심 속에 철석 갖치 곳은 마음은 아지 못호고 다만 자괴 속마음으로 '정임이 말도 울치 아니혼 바는 아니로더 너 생각을 호던지 정임이 생각을 호던지 소소한 일로 전정의 더블힘을 취함이 불가하다' 심각호야 정임을 압제 수단으로 그런 말은 다시 못호게 호야 늦코

(추월색, 『아세아전집』7, pp.34~35.)

생사와 행방이 묘연하지만 영창과의 어렸을 적 정혼을 지키려는 딸 정임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다른 혼처를 구해 시집보내려는 아버지 이시종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구습을 타파하려는 아버지와 전통 윤리에 근거하여 그것을 지키려는 딸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갈등의 바탕에는 친부자간이라는 관계가 작용한다. 즉 친부자간이기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명분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딸에게 손저검까지 하는 강한 대응을 보이면서 딸에게 부모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보통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와 근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녀 세대의 갈등을 드러내는 신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면모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부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자녀는 근대화된 가치관을 보이면서 갈등을 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추월색>에서는 정임이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부모의 뜻보다는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정임이 근대화된 가치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화된 가치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갈등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엿던 사람이던지 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화증이 나는 법이라 소년은 불 갓흔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중 녀학성이 죽기를 한하고 방식하는 양에 화증이 왈카 하며 화증 뜻해 악심이 싱겨서 ... (중략) ... (녀학성) 오냐 죽고 죽고 또 죽고 만 번 죽을지라도 너 갖치 기 갓흔 놈에게 실절은 아니헝갓다 그말에 소년의 악심이 더욱 심햐야 말이 막 굿치자 번쩍 드러던 칼을 그더로 푹 지르는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추월색, 「아세아전집」7, p.12.)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강소년은 정임이를 학교에 갈 썩 맛노고 올 썩 맛노미 음흉한 욕심이 가심에 텅 중햐야 정임이 다니는 학교에쓰지 쓰라가 보기도 호고 정임이 잇는 여관 압쓰지 쓰차 와 보기도 헝앗스노 ... (중략) ... 또 산본 노파를 소기햐야 정당히 통혼도 햐야 보다가 그 역시 실패햐미 이를 것 업시 분히 역이던 츠에 공교히 호졌흔 불인지쓰에서 맛노 달빛헤 빗취는 자식을 다시 보미 불 갓흔 욕심이 바쪽 노셔 엿지되얏던 지 혼 번 쏘아 보리라 헝다가 종녀 그러케 힝피햐고 그 길로 도망햐야 조선으로 나왓스노

(추월색, 「아세아전집」7, pp.90~91.)

<추월색>에서는 친부자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작품의 갈등 정도가 약한 면을 강한영이라는 애정의 방해자를 설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부모와의 갈등을 피해 일

본으로 건너간 정임에게 강한영은 음흉한 욕심을 갖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기야는 정임을 살해하고자 기도한다. 이와 같은 강한영의 등장과 행위는 전체적으로 작품의 갈등 정도를 강화시키면서 또한 정임과 영창을 만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등 작품 전개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너즈의 붓쓰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의게는 아모 말도 못하고 지너던 터이더니 턱
일단즈 보너는 것을 보미 가심이 선뜻하고 심기가 좇치 못하야 몸을 비비틀며 참다가 못
하야 그 모친의 귀에 더고 응석처럼 가만히 호는 말이라

(정임) 나는 식집 가기 시려

(추월색, 『아세아전집』7, p.33.)

정절이 옥 갓흔 정임의 마음이야 과연 엇더하다 호리오 거는방에 혼자 누엇스니
이 심각 저 심각 별 심각이 다 논다 부모의 뜻을 순종호자 하니 인류의 죄인이 되
야 디하에 가서 영창을 불 낫치 업슬 뿐 아니라 이는 부모의 뜻을 순종함이 아니오
곳 부모를 울치 못흔 스흘을 민드는 것이오 부모의 뜻을 좇지 아니호자 하니 그 계
칙은 죽는 수박계 업는디 ... (중략) ... 혼자말로 식집이란 것이 다 무엇 말라 죽은
것이야 서양 스흘은 시악시 부인도 만타더라 호고 벌씩 이리서서 안방으로 드러가
보니 ... (중략) ... 다시 거는방으로 드러가 조화를 너여 편지 써서 자리 우에 퍼 놓
코 느와서 그 길로 더문을 나서며

(추월색, 『아세아전집』7, pp.36~37.)

정임은 처음에는 다른 작품의 여주인공들처럼 갈등 관계에서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다른 작품에서와는 달리 부자 갈등에서 적극적인 면을 나타낸다. 다른 혼처를 구해 시집 보내려는 부모에 맞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 아버지에게 매까지 맞는 등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편지를 통해 표출하고는 집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함으로써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정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도 본 것처럼 친부모와의 갈등이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가족 갈

등을 다룬 다른 작품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정임의 적극성은 그녀가 근대화된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자 갈등을 다룬 작품들을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이 중심인 <설중매화>는 계모 자신의 편안함을 바라는 안전 욕구와 가장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자존심의 욕구가 많이 드러난다. 또한 친부자간의 갈등을 다룬 <추월색>에서는 자식의 편안함을 바라는 안전 욕구와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소속되기를 바라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에서도 계모와 아버지는 자신과 자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자 갈등을 다룬 작품들의 갈등 요인은 가정에서의 주도권, 자신의 존재 의의, 가장의 애정 편중, 가치관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갈등 요인의 바탕에는 <설중매화>에서는 안전 욕구와 자존심의 욕구가, <추월색>에서는 안전 욕구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 좌절되면서 자신과 자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부자 갈등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소설에서는 특히 친부자간 갈등이 혼인과 관련된 갈등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가부장 중심이며 삼강오륜을 최상의 윤리로 하고,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할 의무가 있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가족 관계 중 가장 지배적인 관계선은 부자 관계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고소설에서는 친부자간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현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작가와 독자의 의식 성장, 사회의 변화는 신소설에서 친부자간 갈등을 좀더 다양하게 다룰 수 있게 하였다.⁴⁰⁾ 여기에서 고소설과 신소설의 차이와 변화를 볼 수 있다.

40) 그 예로, <치악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고부 갈등이 중심적인 갈등이지만, 흥참의와 백돌 사이의 친부자간 갈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보수와 개화라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가치관에 의한 친부자간 갈등은 <추월색>에서도 볼 수 있다.

3. 처첩 갈등

부부 관계는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루어진 관계로서 가족의 기초가 되며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가장 밀접한 인간 관계이다.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정과 지속성은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 원만한 가족 관계에서 이룩되며,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유교 윤리의 보편화된 규범 중 하나가 남녀간의 뚜렷한 구분이다. 남녀의 구분은 가족 구조 내의 부부 관계에서도 역할, 권력의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통 가족에서 남성과 여성은 가장과 주부, 또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래서 가장은 주로 집밖의 일을 담당하였고 주부는 집안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남녀의 뚜렷한 역할, 권한의 구분은 가족 관계의 성격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가족 갈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부부 관계는 평등하다기 보다는 상하 관계의 성격이 강하였다. 남성에게는 가장권이라는 이름하에 지배와 통솔의 권한이 부여되었고,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최고 덕목은 복종과 정절이어서 여필종부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부부 관계는 구조적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는 지배와 복종의 윤리가 절대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현대 갈등 이론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피지배자의 갈등이란 느끼지 못하였거나 느끼더라도 표면화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남녀유별과 여필종부의 관념을 음양론에 의거한 균형과 조화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 속에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통 사회의 부부 관계를 구조적으로 갈등 관계라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엄격하고 분명한 구분은 서로의 역할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절대화된 균형과 조화의 윤리로 다스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다.⁴¹⁾

그러나 부부 관계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전통 사회에서 처첩 갈등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첩 관계는 일반적으로 갈등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부부 관계에서 제도적인 정당한 부부 관계는 처와의 관계이지만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 구조로는 첩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두 여성은 윤리 제도와 애정이 대립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또한 윤리로서 참아내야 하는 여성이기에 가부장제 유교 이념의 특수성하에서는 부부 관계로서 남성과의 갈등보다는 같은 여성끼리의 처첩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독점성을 이르는 것이고,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초논리적인 감정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남녀의 결합은 그 자체 내에 문제점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다처제 혹은 축첩제는 이미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남자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여자가 결합됨으로써 애정의 배타적인 독점욕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정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하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다. 이 애정 편중은 독점욕을 한층 발휘하여 갈등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⁴²⁾

또한 유교적 질서하에서는 가장이 절대 권한을 쥐고 가족을 거느렸다. 그러나 처첩 갈등을 다룬 고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서도 그래야 할 가장의 힘이 약화되어 가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첩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른 가족들을 회생시키거나 자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또 첩의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자식까지 버리다시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 장소요 즐거움의 근원이어야 할 가정은 시기와 질투로 불안의 장소가 되어버려 애정이란 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신소설에서 가족 갈등 문제는 가장의 무능으로 인한 가족성원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41)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pp. 205~206.

42) 김윤영,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 18.

결국 처첩 갈등 문제는 질투심과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에 대한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즉, 권선징악이라는 가치관을 고수하는 표면적 주제와는 달리 당대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기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면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 개화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속악한 삶과 개인적 욕망을 위해 기도되는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신소설이 문명 개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학이었다 하더라도 개인 의식이 더 중시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먼저 <귀의 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부인) 이익 점순아 나는 고만 죽고 시픈 마음만 나니 엇지 하면 조탄 말이나

(점순) 마담게서 그런 말슴을 하시면 원네는 아무 경황 업습니다 에그머니 그 원슈의 춘천 마마님 하나 씨문에 원 집안이 이럿케 난가될 줄 누가 알앗쓰가 ... (중략) ...

(부인) 그런 말 마라 세상에 고상 치고 시얏 두고 근심하는 고싱 갖한 고싱이 쏘어더 잇깃느냐 너는 시얏만 업스면 돈 혼 푼 업드리도 아무 근심 업깃다 너 손으로 브누질품을 팔아 먹드리도 영 감과 너와 단 두 식구야 엇더케 못 살깃느냐 너가 자식이 잇느냐 어디 믿음 부칠 데가 잇느냐 영감 한 분 썬이지

(점순) 그럴 터이면 마담게서 돈을 만이 쓰시면 춘천 마마님과 침모를 죽일 도리가 잇습니다 하면서 부인의 귀에 소곤소곤 하는 디로 부인이 고개를 끓덕거리며 입이 썬 버러졌더라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p.187~189.)

이 작품의 김승지 부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인 본처이면서도 첩에 대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함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극단적인 질투심에 자식이 없다는 여자의 열등감까지 가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살인 행위까지 자행하게 만든다.

마루청이 쏘개지도록 발을 구르더니 명창광디 7 화루도승성 지르드시 금단아 스

랑에 가서 령감 엿쥬어라 령감이 밤낮으로 기다리시든 춘천집이 왓심이라고 엿쥬어
라 요 박살을 하여 노흘 년 우익 나가지 아니호고 알진알진 하느냐 니가 조년부터
쳐죽여야 속이 시원호깃다 옥레야 점순아 하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130.)

부인이 성시침이 찌고 말을 헛다가 원리 화순에 불 이러듯 호는 성품이라 괴가
벗석 느서 낮치 벌개지며 왜가리 소리 갓한 목소리불 벌억 지르면서 여보 다시 첩
두면 무어시라고 밍세하섯소 남 붓그럽지 아니호시오 이이 점순아 저 건넌방 치우
고 불덥게 썰여라 오늘부터 마마님 오신돈다 … (중략) … 즈근 돌이란 놈 그 놈 쳐
죽여 노흘 놈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p.176~177.)

서울에 올라온 춘천집의 교군을 보고 김승지 부인은 자신의 화를 애매하게 종
들한테 전가한다. 이처럼 김승지 부인은 시앗 싸움에 살기를 띠고 발악을 하며 종
들을 들볶는데, 그 저변에는 남편의 사랑과 본처라는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 것 같
은 불안감과 그 불안 요소인 춘천집에 대한 적개심이 자리잡고 있다. 김승지 부인
의 이런 심리는 김승지를 떠보고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처첩 갈등을 다룬 고소설이나 신소설에
서는 대부분 첩이 본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가해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본
처가 첩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가해한다는 점에서 전대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면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귀의 성>에서 김승지 부인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역
할을 하며 관계하는 인물로는 점순이와 최가를 들 수 있다.

점순은 속량이라는, 신분 상승적인 해방과 돈이란 경제적 욕망 때문에 살인 행
위에 거침없이 뛰어든다. 이런 점순이는 간계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악인이며 욕망
의 노예다. 그녀의 욕망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승지 부인은 첩으로
들어온 춘천집에게 김승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심한 갈등에 휘말린다. 점순은
이러한 부인의 갈등을 이용하여 춘천집 모자의 살인 계획을 제시하고 부인은 속

량과 엄청난 돈을 약속했다.

(점순) 에그 마님께서 허구한 세월예 저러케 속을 써기시고 엇더케 견디시느
흐면서 고기를 살작 숙이더니 치마끈을 드러다가 눈물도 아니나는 눈을 이리 씻
고 저리 씻고 이 눈도 부비고 저 눈도 부비여서 두 눈이 발개지도록 부비더니 가
장 눈물이는 낫던 체 흐고 고개를 번쩍 드러 부인을 쳐어다 보며 압호로 밧삭 드러
오더니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186.)

(점순) 누가 마님을 시려서 죽고 시푸다 흐는 말숨이오닛가 아낙에 드리왓다가 마
님께서 저러케 근심하시느 거슬 보면 원네는 아무 경황이 업습니다 오날밤일지라도
춘천 마마님이 죽고 업스면 원네는 냉수만 먹고 사라도 살이 씨깃습니다 마님께서
원네 말슴터로만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업스실 터이지마는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p.186~187.)

춘천집을 없애기 위해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점순은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속에도 없는 말로 걱정하고 위하는 듯이 그럴싸하게 꾸며서 한다. 김승지 부인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녀의 행동에서 철저함과 간악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점순이가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은 매우 계획적이다. 당장 춘천집을 가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랑에 살면서 춘천집의 아들 거북이를 젓먹여 기르는 등 춘천집을 정성껏 모신다. 그리고는 살인 계획에 떠돌이 최가를 끌어들이며 일을 진행시킨다. 이러한 사이 김승지 부인은 영감을 피어서 속량해 주고, 황해도 연안에 있는 전장마름 차칩까지 내어놓게 되었다. 그녀의 신분 상승의 욕망과 경제적 욕망은 이제 해결된 것과 같다. 소원성취한 점순이와 최가는 앞날의 설계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김승지 부인에 비해 첩인 길순은 시종일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태도를 보인다. 처첩 갈등을 그런 고소설에서는 거의 모든 작품이 본처는 선인으로 첩은 악인으로 등장시키는

데 반해 이 작품에서는 정반대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첩을 무조건 흉악한 가해자로 설정하는 데서 벗어나 불쌍한 환경의 희생자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IV장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적 의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길순) 어머니 그 말 마오 조은 일도 팔자에 타고 나고 흥한 일도 팔자에 타고 는 거시니 너 팔자가 조홀 것 갖하면 김승지집에 가서도 조홀 거시오 흥홀 것 갖하면 어디를 가기로 그 팔자 면홀 슈 잇소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p.123~124.)

서울 와서 이럴 줄 아랏스면 신연강 김푼 물에 풍덩 빠져 죽엇슬걸 원수의 목숨이 붓터 잇서서 이 밤에 이 근심을 호는고나 ... (중략) ... 세상에 시얏 싸흠이 다 그러헌가 우리 안마누라민 그러헌가 남의 첩 되는 사롬은 사롬마다 이 광경을 당호는 이 광경을 당호는 사롬은 세상에 나 호나뿐인가 춘천 솔기 동너서 동구 밧게를 나아가 보지 못호고 자라노던 이 너 몸이 오날 서울 와서 이거슬 당호니 자다가 벼락을 마저도 분수가 잇지 에그 괴 뵈혀라 ... (중략) ... 이 세상에 누구를 바라고 사라 잇스리오 차라리 죽어져서 이 셔름을 이젓스면 니 신상에 편호리라

(귀의 성, 『아세아전집』1, pp.146~148.)

길순은 본처나 김승지에게 직접적인 저항을 않고 자신의 불행을 다만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있다. 의지와 행동의 주체로서 자각이 결여된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너무 일찍 낙담해 버리기 때문에 춘천집은 두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한다. 이는 본처의 질투와 대립 의식에 맞서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극단적인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다. 장애에 부딪혔을 때 자살만을 유일한 해결법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분명히 패배주의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처의 질투에 대해 자신을 대변해 줄 유일한 인물인 김승지의 무력하고 결단력 없는 행동 때문에 힘없는 춘천집으로서는 자살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처첩 갈등을 다룬 또 다른 작품인 <빈상설>을 살펴보도록 하자.

평양집은 간혹호고 요악호 씨가 충싱첩출호는 중 거복이가 제 흥 보든 말을 손살

피 갖치 슈소문호야 듯고 복보슈홀 마음을 잔씩 두엇다가 큰집으로 들어온 후로 말
타면 경마 들닐 생각이 난다고 집안에 잇는 종이란 종은 모쪼리 제 차지를 호는디
심지어 리씨부인이 다리고 온 교전비 복단이까지 췌앗고 그 중 금분이는 제 서방에
혐의로 췌가 췌지도록 부러 먹고 숨시로 달달 복글 작덩이러니

(빈상설, 「아세아전집」1, pp.419~420.)

이 작품에서 서정길의 첩인 평양집은 본래 간특하고 요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거기다가 본처인 이씨부인에 대한 시기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어떤 악
행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은 본처인 이씨부인을 쫓아내고 큰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다. 이같은 이씨부인에 대
한 시기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신분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갈등이 심화된
다. 그녀는 본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지니고 호강하며
편하게 살려는 목적에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처첩 갈등은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평양집의 갈등을 표출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금분이다.

화지동 아씨 친정 아버지 리승지 령감은 착호지 안아서 귀양다리가 되엿나 남의
청 안이 듯고 지물 모로기로 유명호 양반으로 출신을 갖가히 호야 정스를 바르게
호고 간신을 물이쳐 법강을 세우라고 울코 반듯호 상소를 호다가 그 디경이 되엿다
는디 지금 세상에는 다 쓸 디 업셔 못된 짓 호는 사릅이 다 잘 된다더라

(빈상설, 「아세아전집」1, p.411.)

금분이가 마음을 업치락뒤치락 두 가지로 먹고서 듯다가 제 옷가음 쓴어 준다는
말에 회가 밧삭 동호야 평양집 위호는 생각이 불현듯시 나셔 혼즈말로 그믄달 보자
고 초저녁부터 나설까 동방삭이 밤 갈가 먹듯 잘게 췌여 먹는 것시 슈지

(빈상설, 「아세아전집」1, p.413.)

금분이는 처첩 관계인 이씨부인과 평양집이라는 두 상전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
득에 눈을 돌린다. 당시 현실의 모습과 나름대로 터득한 세상 이치를 바탕으로 눈

치 빠른 그녀는 현재 실세인 평양집의 욕망을 실천해 주는 악비로 행동한다. 또한 그녀는 상황에 따라 표리부동한,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면은 어두운 골목에서 복단의 시체를 보고 그것을 확인할 만큼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용의주도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현실상황과 이익에 민감하여 앞뒤를 맞추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금) 그런 말슴은 하시나마나 원네가 아씨일에 범연호겻슴닛가 어디까지던지 눈실
에 흙 드러가기 전에야 아씨 찌러져는 일시도 못살겻습니다 서울서 살으시면 원네
도 서울서 되시고 잇고 시골 친정덕으로 내려가시면 원네도 시골가 되시고 잇슬 터
인디요 ... (중략) ... 중문 밖그로 나오는 체 호고 문소리만 빼거덕 니면서 조취 업
시 섯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허리춤에서 평양집 쥬던 것을 집어니여 절반은 썩 데
어서 룡문을 감아니 열더니 옷갈피 속에다 썩 집어넛코 남겨지를 다시 싸서 허리춤
속에다 넛코셔야 아래목에서 자는 제 셔방을 썩인다

(빈상설, 『아세아전집』1, pp.416~417.)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 판단이 된 뒤 행동은 거침이 없다. '약고 눈치 빠른 금분이'는 평양집의 비위에 맞도록 행동하려 한다. 상전을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이씨부인을 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서도 상전이 일을 도모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의 반은 따로 자기가 챙기는 등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녀에게는 상전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그외의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흔참 이 모양으로 닳토는디 부인이 시속 편협호고 귀등더등 호는 사람 갖흐면 시
앗에 종년이 와서 자기 움에 와 그 모양으로 호면 그 년에 머리치라도 휘여 잡고
이 년 네 상전 년이 너 압헤 가 나와 곱치 잇는 종어멈을 히 내라고 식히드나 가진
요악을 다 부려 남편 썩앗고 집 세간 종까지 썩앗고 무엇이 부족호야 혼편 구석에
썩계와 잇는 더까지 네 년을 보니여 포달을 휘이게 호드야 마드야 호고 금분이 이
뺨 더 뺨을 쥐어박아 시앗에 분풀이를 호러들년만은 본러 가뎡에 학문이 상업지 안
코 텃성이 유순호야 범절이 덕기가 더러더러호 부인이라 설왕설러를 호다가 점점
뒤 것친 말이 나올가 넘려를 호야 일ಾಗಿ장에 미국 더통령이 구화담판호듯 평화호

도록만 말을 한다

(빈상설, 『아세아전집』1, p.406.)

너 팔즈 갓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더 잇슬가 팔즈가 이 디경이 되랴거던 세상
밧게 싱겨나지를 말겨나 ... (중략) ... 남편은 소틴이라 하날과 일반이니 비를 나리
다가도 날을 기게도 흐는 능력이 잇느니 즈연 선악간 구별이 되야 후회흐는 날이
잇나니 범스를 참고 기다릴지어다 흐신 말숨을 명심불망흐고 빅 가지 천 가지를 참
기로만 종스를 헛것마는 니가 너일을 모르고 잘못흔 처사가 잇던가 도흔 날 도라오
기는 고사흐고 인제는 막 맞침이 되엿스니 더 바라고 기다릴 것도 업고 어서 죽어
모로논 것이 상칙이지

(빈상설, 『아세아전집』1, pp.534~535.)

<빈상설>의 이씨부인은 첩의 종인 금분이가 와서 화를 돋구며 복단 어미와 싸
우고 있는 데도 점잖게 타이르는, 부덕(婦德)을 지닌 온순한 성격의 인물이다. 그
녀는 악인들의 모해를 받아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 번 처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며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자살까
지도 생각한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전통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삼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류의 인물은 고소설적인 선인의 모델로 거의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들의 갈등 요인을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귀의 성>에서는
본처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바라는 안전 욕구와 가장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나타난다. <빈상설>에서는 첩이 자신의 편안함을 바라는
안전 욕구가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들이 좌절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의
지위와 편안함을 보장받으려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공격은 가해자가 갈등 요인이 강하고 악한 인
물로 등장하는 고부 갈등, 부자 갈등에서의 계모(시어머니)와 처첩 갈등에서 첩
(처)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심리적인 것으로 불안이 있다.
자신의 처지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불안 상태를 유발시킨다고

추측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좌절은 불안의 한 원천으로, 불안이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다양한 정도로 경험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와 같은 용어가 나타내는 불유쾌한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은 대부분 개인의 내부에 있는 무의식적 갈등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강하게 동기화된다. 인생 과정에서 각 개인은 불안 유발 상황과 불안 감정을 다루는 갖가지 방법을 터득한다.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방식이 있다. 하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불안 유발 상황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 이 불안을 변화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한다. 다른 하나는 정서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은 불안을 유발시키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한 감정을 줄이려고만 한다.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들에서 대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계모)시어머니, 부모(계모), 첩(처)들은 불안 유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앞에서 본 다양한 공격 형태들이 나타나 는 것이다. 그에 반해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며느리, 전실 소생 등의 자녀, 처(첩) 들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불안한 감정만을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가족 갈등의 피해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 갈등의 심리적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욕구 좌절 → 불안·갈등 → 공격 욕구 → 공격 행동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더불어 공격 욕구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족 갈등의 심리적 요인이면서 갈등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치첩 갈등을 다룬 작품들의 갈등 요인으로는 피해 의식, 질투심, 열등감, 재물에

대한 탐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바탕에는 <귀의 성>에서는 안전 욕구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빈상설>에서는 안전 욕구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욕구가 좌절될 때 자신의 지위와 편안함을 보장받으려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적 공격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처첩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귀의 성>의 경우 처첩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처첩 갈등은 고소설에서 계모와 전실 소생간 갈등과 함께 주로 다루어진 갈등이다. 고소설에서는 대부분 본처는 선인으로 첩은 악인으로 등장시켜, 첩이 본처에게 악의를 품는 데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귀의 성>에서는 정반대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고소설과는 구별되는 신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가족 갈등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 유형	작품명	가해자	피해자	가해의 조력자	갈등 요인	갈등 표출 방법	심리적 요인
고부갈등	치악산	김 씨 부인	이 씨 부인	옥단 · 고두쇠 · 남순	가정에서의 주도권, 시기심, 열등 의식	도구적 공격, 적의적 공격 (치악산에 버림)	안전 욕구, 자존심의 욕구
	안의성	시어머니	박정애	정봉자 · 김영자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괴리, 적개심	도구적 공격 (이혼시킴)	안전 욕구
부자갈등	설중매화	안 씨	김옥희	난향 · 재덕	가정에서의 주도권, 자신의 존재 의의, 소외감, 가장의 애정 편중, 재산권에 대한 욕망	도구적 공격, 적의적 공격 (집에서 축출함)	안전 욕구, 자존심의 욕구
	추월색	이시종	이정임	강한영	가치관의 차이	도구적 공격 (타처로 시집 보내려 함)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처첩갈등	귀의성	김송지 부인	길 순 (춘천집)	점순 · 최가	피해 의식, 질투심, 열등 의식	도구적 공격 (살해함)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빈상설	평양집	이 씨 부인	금분	시기심, 열등 의식, 재물에 대한 탐욕	도구적 공격, 적의적 공격 (인신 매매하려 함)	안전 욕구

IV.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가정소설은 개화기에 이르러서도 그 생명력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신소설 형태로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나왔다. 그것은 가정소설의 가족 갈등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현실적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갈등은 가치관의 대립을 통해 개화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기에 신소설 작가들이 고소설의 여러 갈래 중 가정소설을 특히 집중적으로 계승하였다. 즉 신소설 작가들은 다방면의 변화 시기인 개화기에 그에 상응하는 시대적, 사회적인 제약으로 당대 사회 현실과 생활 양식을 주인공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인물의 개인적인 측면과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도덕 원리 등을 그대로 소설 속에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적절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다룬 가정소설에서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갈등을 다룬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먼저 작품 속의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말에서는 사건의 갈등과 분류 결과가 드러나고, 전개된 문제들이 해결된다. 또한 작중 인물의 운명이 명백해짐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위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안정 상태를 위한 기초가 주어지게 된다. 물론 이런 상태의 안정을 위한 기초는 최종적이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작가는 플롯의 전개 과정, 특히 결말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나 행위,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태도나 방법 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말을 어떻게 맺는가 하는 문제는 구성의 기법적 측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물의 성격 뿐 아니라 작가 의식이나 독자의 세계관과도 직결된

다. 특히 행위의 결말이 행위 과정과 인과적 관계에 있지 않고 비현실적 방법이나 우연적 방법에 의해 비약적으로 유도되었을 때는 그 결말이 갖는 의미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연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가족 갈등을 다룬 신소설의 경우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사회 규범이란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기에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규범 자체도 변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연한 진리로 인식하고 따르던 규범을 수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실상은 미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위적 규범은 과거의 이상 사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화된 당위 규범과 살아 생동하는 사회의 실상간에는 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 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⁴³⁾ 그런데 가정소설의 작가들은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그것을 부도덕시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선인형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는 '행복 → 고난 → 행복'의 과정을 반복하며 결과적으로 권선징악적인 고소설의 주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악인형 노비들은 상전이 내미는 속량의 약속을 받고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런 일을 실행하고 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벽을 뚫지 못하는 노비 집단과 양반 계급의 갈등이 상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악인형 인물은 독자들에게도 부정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벌을 받고 패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모순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 즉 신소설은 신소설 나름대로의 개화기라는 역사적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비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그 하나의 예로 <귀의 성>을 들 수 있다.

선인 집단에 속한 인물들은 봉건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도 긍정되고 근대적

43) 김윤영(1990), 전제서, p. 52.

44) 이홍숙, "신소설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1990), p. 8.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도 긍정되는데, 악인 집단에 속한 인물들은 어떤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귀의 성>에서는 첩 길순이 선인·피해자로, 본처 김승지 부인이 악인·가해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인물 설정의 도식이 정반대로 바뀔에 따라, 이 작품 구조는 전대 가정소설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귀의 성>은 그 전까지 소설적 관습이었던 행복한 결말을 깨고 비극적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결말이 희극적이냐, 비극적이냐의 문제는 단지 소설 기법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귀의 성>에서 보인 비극적인 결말은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전대 소설을 살펴 보면 당위의 현실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덕률에 철저하면 할수록 끝내는 구원을 받아 행복한 결말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미 봉건적 신분 관계가 제도적으로 철폐된 시점에서 길순과 같이 첩으로 일부종사하는 모습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져야만 한다는 '있어야 할 현실'은 있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⁴⁵⁾ 그러므로 작가는 '있는 현실'을 선택하여 그리고 있다. 길순의 불행은 현실 속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전대 가정소설의 작가들이 첩을 무조건 흉악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축첩제의 제도적 불합리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첩 개인의 인성 결함 탓으로 돌리던 것과는 달리, 첩을 불쌍한 '환경의 희생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귀의 성>에서는 첩에 대한 시선이 전대 가정소설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증오의 대상이던 첩이 연민의 대상으로, 연민의 대상이던 본처가 증오의 대상으로 자리바꿈된 것이다. 작가의 관심이 '봉건적 질서의 유지'에서 '봉건적 질서의 타파'로 전환되면서⁴⁶⁾ 첩들에게 이제는 작가의 연민어린 시선이 던져지고 있다. 이것은 첩으로서의 삶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45) 오현주, "개화기소설의 현실대응방식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p. 42.

46) 이원수(1991). 전계서, p.200.

있다

또한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들은 선인형 인물과 악인형 인물의 대립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인형 인물에는 <치악산>의 이씨부인, <안의 성>의 정애, <설중매화>의 옥희, <추월색>의 정임, <귀의 성>의 길순, <빈상설>의 이씨부인 등이 속한다. 이 인물들은 대부분 여주인공들인데,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들로서 현실 타개 의지보다는 운명에 순응하며, 공격적이기보다는 굴복적이기 때문에 항상 대립 인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즉, 자기 스스로 분명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배 계급이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순종하는 형이다. 운명에 대하여 소극적이면서 또한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자기 희생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추월색>의 정임만이 III장에서 본 것처럼 친부모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의사 관철을 위한 적극성이 보일 뿐이다.

신소설에서 이들은 악인인 안타고니스트들에게 죽음이나 능욕의 위협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인신매매의 와중에 휩쓸리는 등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인형 인물은 당시 독자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복 추구하고 획득 과정이 중요한 관심사였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충족해 나갔다.

또한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작가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는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가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 인물을 등장시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서도 작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인물의 의식과 행동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악인형 인물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며, 동시에 개인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신소설 인물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성격들로서 집념이 강하며 열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곧 능동적이고 주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소설 속의 모든 갈등이나 사건은 이 인물들로 하여금 생겨나고 진행된다. 이들은 기존 세계에 대한 현실 순응형의 인물들이 지니는 지적이고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가진다. 따라서 철저히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반사회적, 배타적 행동을 취한다. 이들은 대부분 본성이 악하고 재물에 욕심이 나서, 또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직접, 간접으로 선인형을 괴롭히는 인물이다.

이 유형으로는 <치악산>의 박씨부인, <안의 성>의 시어머니와 정봉자, <설중매화>의 안씨, <추월색>의 이시종과 강한영, <귀의 성>의 김송지 부인, <빈상설>의 평양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해자에 대해서는 강렬한 증오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의 독점욕은 잔인한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도 <안의 성>의 시어머니와 <추월색>의 이시종은 III장에서 본 것처럼 가족 관계의 여건상 갈등과 가해 정도가 다른 인물들보다는 약하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 악인형인 상전을 도와 사건 전개에서 실제적인 계획과 실행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인물들도 포함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은 <귀의 성>의 점순과 최가, <빈상설>의 금분이, <치악산>의 옥단과 고두쇠, <설중매화>의 난향 등이다.

이처럼 신소설에서도 가족 갈등을 보이는 작품들은 선인형과 악인형 인물들의 대립이라는 전대 소설의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악인형 인물들은 작품에서 악인으로 그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자아를 의식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악인형 인물들의 이런 면은 소설에서 꼭 필요한 동적인 구조의 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문학에 표현되는 인간의 삶이 어차피 선과 악의 조화 속에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소설 속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선악의 대립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독자는 이야기의 전개 도중 선을 응원하겠지만 악이 있기에 선을 응원하는 것이고, 악이 있기에 문학적 가치를 발현하게 되고 카타르시스적 문학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작품에서 선과 악을 대립시켜 사건을 구성한 다음 선인에게 먼저 고통을 주고 악인에게 승리를 주어 독자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끝에 가서는 권선징

악의 귀결에 이르게 함으로써, 긴장의 해소와 함께 안정감을 주면서 미적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신소설이 윤리 의식 외에도 소설의 흥미에 또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점은 작가 자신을 사회의 선도자적 입장에 있다고 보는 계몽소설의 성격, 즉 확실한 삶의 좌표를 설정해 준다는 문학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⁷⁾

또한 이같은 가족 갈등을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권선징악의 결말과 선인형과 악인형 인물의 대립을 막연하게 전대 소설의 계승으로만 보는 시각을 달리해 봄으로써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그 당시 독자들의 수용과 관련되었을 때 개화기 가정소설은 그 기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자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문학사적 의의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문학 작품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작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공동 창작에 의해 비로소 생동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작품에서 독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소설이 그 공식성과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흥미와 독서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진술과 독자 혹은 청중들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공통 의견 사이의 진실성 때문이다. 행복을 타고난 주인공이 의외의 재난으로 고난을 당할 때 독자들은 이미 그가 결국은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악이 처벌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그러한 문학적인 지각 양태 속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젖어 있어서 그에 따라 창작되고 독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⁴⁸⁾ 규범적인 관습은 작가와 청중 혹은 독자 사이의 공통 토대를 마련해 준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 지니는 진정한 가치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작품이 독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여기서 신소설 독자

47) 김영환, “家庭小說에 나타난 惡德女攷”(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 62.

48) 이재환, “신소설의 서사구조와 장르적 특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p.26.

중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남성에게 억압받는 존재였다. 여성의 억압된 심리는 여성 우위의 소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애정이며 남녀 관계라 할 수 있다.⁴⁹⁾ 여성 독자들은 현실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를 이런 내용의 소설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여성 독자들은 여성인 작중 인물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자신의 경험이 해석의 확고한 바탕으로 취급되며, 이 때 그 경험은 모든 여성들의 총체적 경험이 된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가족적 구조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독자로서 그들의 경험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운명적인 삶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소설은 당연히 작가 자신을 포함한 독자들의 정의와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를 소설 속에서 이루는 결말의 완결 구조를 선호한다. 불안한 현실을 경험하는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은 주인공의 행복에 대한 추구하고 획득 과정이 중요한 관심사였고 욕망을 대리충족할 수 있었다.⁵⁰⁾ 이런 점이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 연결되어 결말에 가서는 악이 패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 작가, 독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와 사회의 모든 결함이나 불만을 보상하기 위해 상상 속의 세계나 사회를 그려서 소망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작품에 삽입되고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 점은 작품의 배경과 인물에서 잘 나타나는데 인물에 한해 살펴보면 주인공보다 특히 주변적 인물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주변적 인물은 현실과 대립하는 주인공을 방해하여 상황을 파기하고 역전시킨다.⁵¹⁾ 이런 주변적 인물의 대표적인 유형은 구전문학의 말뚝이형 인물이나 고소설의 방자형 인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신소설에서는 바로 악인형 인물로 나

4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p. 418.

50) 김주영, "이해조 소설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p. 48.

51) 허춘, "고소설의 인물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p. 93.

타나는 것이다.

특히 속량을 갈망하는 노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폭력이나 살인 행위를 자행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오직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행위만이 크게 부각될 뿐이다. 이런 악행은 결국 비사회적이며 행동의 한계성을 드러내지만, 소설 자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선은 이런 점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적 인물로서보다는 주인공이나 그들의 상전들의 성격 재현을 위한 보조적인 돋보기 인물(foil character)로서의 기능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차지하는 기능이 이와 같이 보조적인 것과 같이 개인주의로의 독자적인 탈각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봉건적인 위계 질서에의 충성에 의해서만 속량의 길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인물들이다. 속량의 방법은 결국 이런 충성과 돈의 확보다⁵²⁾”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신소설의 악인형 인물은 명목상 부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과 전개에 계기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주인공의 고난을 확대하여 승리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주도하며 사건을 전개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그 구성 자질에서부터 반동 행위의 성패, 그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개연성을 지닌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럼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강한 긴장과 흥미 유발은 물론 관심 고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작품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윤리적 당위인 권선징악적 주제 구현에도 기여한다. 그 역할은 보통 주인공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모에 의한 전실 소생의 수난, 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본처의 고난 등에 관련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바로잡으려는 주제의 필연성을 보다 부각시켜 준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신소설의 악인형 인물들은 모든 악역을 실천하는

52) 이재선(1972), 전계서, p. 308.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만, 작품의 여러 인물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역할들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갈등을 다룬 개화기 가정소설은 전대 가정소설에서 주로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 처첩 갈등 중심으로만 갈등 양상을 다루었던 것을 다양화시켰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소설에 와서는 유교적 전통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대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부 갈등을 다루었고, 부자 갈등, 처첩 갈등에서도 그 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작가와 독자의 세계관과 의식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갈등을 다룬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가늠해 본다면, 이 작품들은 인물과 갈등 구조면에서 그것이 창작되던 시기의 문학적 관습과 독자의 기대감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현실을 당시의 시각에서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들 중 <귀의 성>에서 처첩간 악인과 선인의 자리바꿈이라든지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결말 처리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작품 속의 악인형 인물들 중 시대와 사회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악인형 노비들이 고소설의 악인형 노비들과는 다른 요인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데서도 신소설 나름의 변화와 특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소설 작가들이 봉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고소설의 유형에서 한꺼번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 해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이상으로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성립된 신소설 중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가족 갈등을 고부, 부자, 처첩 갈등으로 나누어, 그 갈등 구조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 갈등의 요인과 전개 과정, 심리학적 요인 등을 통해 개화기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 갈등을 다룬 <치악산>의 갈등 요인은 무엇보다도 계모시어머니가 가정에서 여가장으로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세력 구조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친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다룬 <안의 성>은 며느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괴리에서 그 갈등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치악산>에서처럼 시어머니가 계모인 경우는 시어머니와 계모라는 역할이 중첩되면서 갈등 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부자 갈등을 다룬 <설중매화>는 가장의 애정 편중과 계모의 존재 의의에 대한 자각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추월색>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친부자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갈등 정도가 계모와 전실 소생간의 갈등인 <설중매화>보다는 약하다.

셋째, 처첩 갈등을 다룬 <귀의 성>에서는 첩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남편의 사랑을 지키려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빈상설>에서는 첩에 대한 열등 의식과 시기심,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갈등이 일어난다.

넷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효의 절대성 등은 며느리, 전실 소생 등의 자녀, 첩(처)에게 주어진 갈등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추월색>의 정임만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일 뿐이다.

다섯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에서 하층 계급인 <치악산>의 옥단과 고두쇠, <설중매화>의 난향, <귀의 성>의 점순과 최가, <빈상설>의 금분은 속량이라는

신분 상승과 돈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들로, 갈등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섯째, 가족 갈등의 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좌절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상대방에게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일곱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의 결말은 선인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패하게 되는데, 주인공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난 인물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악의 패배는 변동하는 개화기의 사회 속에서도 악은 허용될 수 없다는 윤리의 표방으로, 서술자의 의도는 계세징인(戒世徵人)으로 그 풍속의 교정과 전통적 윤리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볼 때 <귀의 성>은 그 전까지 소설적 관습이었던 행복한 결말을 깨고 비극적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고소설과는 다른 신소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덟째,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은 선인에게 먼저 연속적인 고통을 주고 끝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선의 효과적인 교시 기능과 긴장의 연속으로 독자의 흥미를 복돋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선징악적이고 흥미 중심의 경향은 바로 독자층을 의식한 결과이다. 또한 신소설의 악인형 인물은 전대 소설의 많은 요소를 유지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홉째, 가족 갈등에서의 악인형 인물은 모든 악역을 실천하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인물은 작품의 여러 인물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존재들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체 구조에 확실히 참여하면서 선을 부각시켜 문학적 가치를 발현하고 카타르시스적 문학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서도 그 문학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가족 갈등을 다룬 개화기 가정소설은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 처첩 갈

등 일변도인 전대 소설에 비해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부 갈등으로까지 그 갈등 양상을 다양화시켰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소설이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양식으로 현실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시대적인 현실 구조를 바탕으로 완결된 양식을 취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 그 가치를 매기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개화기라는 당대 현실과 소설, 그리고 작가 의식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양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소설도 소설사적 흐름에서 변모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가족 갈등에 대하여 살핌으로써 그 문학사적 의의를 자리매김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는 신소설 작품 중에서도 고부, 부자, 처첩 갈등을 내용으로 한 몇 작품에만 한정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 논의의 범위를 넓혀 고소설과 현대소설의 가족 갈등 비교 연구 같은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I. 자료

- “설중매화”. 「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8」, 계명문화사, 1987.
- “안의 성”. 「개화기문학 신소설전집 14」, 계명문화사, 1987.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귀의 성”.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 신소설·번안(역)소설 1」, 아세아문화사, 1978.
- _____. “빈상설”.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 신소설·번안(역)소설 1」, 아세아문화사, 1978.
- _____. “치악산”.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 신소설·번안(역)소설 2」, 아세아문화사, 1978.
- _____. “추월색”.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 신소설·번안(역)소설 7」, 아세아문화사, 1978.

II. 단행본

-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1.
-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 김용직 외. 「개화기 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1987.
- 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9.
-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재용.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재은. 「한국 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 김현실. 「한국근대단편소설론」, 공동체, 1991.
- 문성숙. 「개화기소설론 연구」, 새문사, 1994.
- 박용옥 외 6인. 「한국 여성 연구 1」, 청하, 1988.
-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송현호. 「한국현대소설론연구」, 국학자료원, 1993.
- 신동욱. 「문예비평론」, 고려원, 1989.
- _____. 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신춘자. 「개화기소설연구」, 인문당, 1990.
- 양문규. 「한국근대소설사연구」, 국학자료원, 1994.
- 우쾌재.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윤병로. 「한국 근·현대 문학사」. 명문당, 1991.
- 윤석산 외. 「문학의 이해」. 태학사, 1994.
- 이광규. 「한국 가족의 구조 분석」. 일지사, 1975.
- _____. 「한국 가족의 심리 문제」. 일지사, 1981.
- _____.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86.
- 이선영 외.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 세계, 1989.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93.
- _____. 외.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1993.
-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전광용.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86.
- _____.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7.
- _____.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 _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민음사, 1993.
- 최재석. 「한국 가족 연구」. 민중서관, 1975.
- 한길문학 편집위원회 편. 「한국근현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열화당, 1980.
- 황패강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Ⅲ. 논문

- 구중서. “한국소설의 전통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5.
- 권영민.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 권희돈. “한국소설의 독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1978.
- 김교봉. “신소설의 서사양식과 주제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김숙자. “신소설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 김영환. “가정소설에 나타난 악덕녀고”.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김윤영.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김종구. “혼인시련 신소설의 서사구조와 인물유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0.
- 김주영. “이해조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춘섭. "개화기 소설의 사회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77.
- 김희자.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노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문기룡.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갈등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배종준. "개화기 계모형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 서종택. "한국 근대소설 작중인물의 사회갈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 석희섭. "신소설에 나타난 인간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성기조. "한국근대문학의 전통 논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4.
- 성인애. "한국의 고부갈등".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1.
- 신요섭. "신소설에 나타난 인물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0.
- 오현주. "개화기소설의 현실대응방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 유승렬. "개화기 소설의 변이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2.
- 윤충의. "신소설의 화자와 인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2.
- 이기숙. "한국 가정의 고부 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5.
- 이동길. "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순주. "사씨남정기와 귀의 성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1.
- 이용남. "신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 이 원. "이인직의 신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9.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 세계의 시대적 변모".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1.
- 이은용.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수난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이재선.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사학』 제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이재환. "신소설의 서사구조와 장르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 이홍숙. "신소설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1990.
- 임관수. "한국근대소설론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8.
- 임수복. "이인직 소설에 나타난 친일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임인재. "신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상".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 정경수.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성격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2.
- 정혜심. "계모형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 최종순. "신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1993.
- 최효일. "고부갈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 허만옥. "신소설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 허 춘. "고소설의 인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현혜경. "신소설의 주제 및 시대적 성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 황정현. "신소설의 분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IV. 번역서

- 김화영 편역.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 리몬-캐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 리타 아트킨슨 외. 홍대식 역. 「심리학개론」. 박영사, 1988.
-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4.
- 이훈구 역. 「현대심리학개론」. 정민사, 1986.
- 퇴니스. 황성모 역.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삼성출판사, 1982.
- 포스터.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Reflected in Shin-Soseol (New novels)**

Chen, Eun-Yo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the aspect of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 between mother and daughter-in-law, father and son, wife and concubine reflected in the domestic novels written in the specific period of Kaehwagi. This thesis also tries to check the literary meaning of the domestic novels in Kaehwagi by examining the main sources,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family conflicts. Six sample novels are chosen, and the followings are the brief notes of the thesis.

Firstly, the novel <Chi'aksan>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step-mother and daughter-in-law. The conflicts develops as the step-mother tries to establish a matriarcal leadership inside the family. The conflict type in <Anui Seong> is rather typical because it is between mother and daughter-in-law. The daughter-in-law does not proceed with the expected role from the mother and thus does not gratify her. If mother is a step-mother, the level of conflict is more profound because the mother tries to behave wi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8.

authority over daughter-in-law like a normal mother and at the same time she must deal with her own complex as a step-mother like in the case of <Chi'aksan>.

Secondly,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conflict arises between the father's favouritism to his son and the realization of existential meaning by the step-mother in <Seoljungmahwa>. In <Ch'uwolsaek>, we can find the source of the conflict from the difference of value-system and the generation gap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However the level of the conflict here is less profound as it i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compared to the case in <Seoljungmahwa> in which the conflict lies between the son and the step-mother.

Thirdly, the case of <Kwiui Seong> is much more complicated in the point that the wife is jealous of the concubine and has a sense of inferiority. She also tries to get her husband's love and to keep her position as a first wife. In <Binsangseol>, the situation is contrasting. The concubine feels the inferiority and the jealousy onto the wife, and she is even greedy to collect the valuables.

Fourthly, it is interesting that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and the strong ethics of filial obligation effect the characters in the novel (daughter-in-law, stepchild, wife or concubine) to react very passively upon one's conflict. Only we can find one exceptional case in <Ch'uwolsaek> : Chong-Im shows a little active attitude toward her situation.

Fifthly, some character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conflict in the point that they are from lower social class trying to change their social status and do anything for the money maliciously : Ok-Dan and Kudushoi in <Ch'iaksan>, Nan-Hwyang in <Seoljungmaehwa>, Chong-Sun and Ch'oiga in <Kwiui Seong>, and Keum-Bun in <Binsangseol>.

Sixthly, from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e sources of conflict within family members can be analyzed as follows : safety-frustration, weak attachment to other family members, desire to be loved, and the strong sense of one's pride. If one of the conflict sources cannot be fulfilled, the character

takes an aggressive attitude toward the reactionary character.

Seventhly, one characteristic of these domestic novels is that the conflict is normally solved by someone who shows himself/herself accidentally, not by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The ending is a typical happy ending : Always the good wins. The lesson here is quite obvious. Even during the drastically changing period like Kaehwagi, the authors seem to hold the traditional moral senses, therefore they still do not permit the room for evil. They try to correct it, and if they cannot, they eliminate it in their novels. <Kwiui Seong> is noteworthy in the point that it ends in a tragedy. This tragic ending is on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Shin-Soseol(New Novels) from Go-Soseol (Old Novels). This implies the change of author's thought is affected by the social changes of that period.

Eighthly, the good wins not easily or so soon but after long periods of suffering. This approach is very effective in the sense that it holds the reader's attention due to the continuous tension of the main character while increasing the reader's interest. The reason why the author takes this type of approach is because it is more welcomed by the readers. They still prefer to the promotion of virtue and light readings. Though it is not a drastic change, the bad character in Shin-Soseol shows some partial changes in its role while maintaining many typical characteristics of Go-Soseol.

Ninthly, the bad characters commit so many evil things, but in fact they are the most realistic people who bring the vitality to the novels. They contribute to the novel in the point that their roles are quite distinctive revealing their literary merits and in another sense, they provide the readers of the literary catharsis.

Lastly, the subjects of the novels before Kaehwagi usually cover the conflicts between step-child and step-mother or wife and concubine. However, the domestic novels in Kaehwagi expand the coverage of conflict to that of mother and daughter-in-law. This is very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ecause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daughter-in-law was always regarded never to have a chance to reveal her conflict with a mother-in-law.